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태 현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 지 현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 태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 지 현

인 준 서

박 지 현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위기이자 전환기로 여겨지는 중년기에 대해서 개인 및 가족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 및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중년기에 대한 연구는 중년기를 위기의 시기로 보는 시각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부분이 개인의 심리·정서적 부적응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어져 왔다. 따라서 중년기는 건강성의 차원이 아닌 비건강성 차원에서 개입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개입 필요성이 부각되어져 왔다. 그러나 중년기는 오히려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써 가족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과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를 재정립 하여 더욱 건강한 개인 및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시기이다. 즉, 중년기에 대한 연구는 결점 관점도 필요한 동시에 강점 관점에 입각한 탄력성의 측면에서 조망되는 것 또한 중요하며,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적 요인을 함께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40~50대를 대상으로 총 298명(남자 105명, 35.2%, 여자 193명, 64.8%)을 표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조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McCubbin(1982)과 김안자(2005)의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하였고, 가족탄력성은 Antonovsky와 Sourani(1988), Olson과 동료들(1985), Walsh(1998), 김미옥(2001) 등의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D'Zurilla와 Nezu(1990), 박소라(1998)의 문항을 참고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SPSS 12.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t-test, ANOVA,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일반적 경향은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나 결국 중간 이상의 가족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면서 가족탄력성이 중간값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간 수준 이상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유무나 가족형태, 가족관계 등의 가족 구조적·관계적 요인과 직업, 생활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의 신념체계 영역에 있어서는 학력과 배우자의 유무, 가족형태, 가족관계, 가계소득이 가족통제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강점은 배우자의 유무, 가족관계, 가계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조직유형 영역에서는 역할안정성 부분에서 성별, 배우자의 유무, 가족관계가, 가족응집력에서 가족관계, 가족자원 활용도에서 종교, 가족형태, 가족관계, 직업, 가계소득,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사소통 과정 영역에서는 부부관계가 의사소통의 명확성 요인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개방적 감정표현에 있어서는 연령, 배우자의 유무, 가족관계가,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학력, 가족관계, 생활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문제해결지향 영역에서 가족 구조적·관계적 요인과 함께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기술 영역에서는 특히 배우자의 유무와 가족관계가 문제해결기술 능력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문제해결기술은 결국 개인적인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요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배경변인과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부관계 만족도 및 가계소득과 역할안정성, 개방적 감정 표현 및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방적 감정표현이었고, 그 다음이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역할안정성, 부부관계 만족도, 가계소득 순이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스트레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탄력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기능한다면 이러한 스트레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강력한 영향 요인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년기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매우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의 능력으로만 바라보는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가족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이 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타남에 따라 강점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 제안하는 바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3
II. 이론적 배경	6
1. 중년기의 이해	6
1) 중년기의 개념 및 특성	6
2.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12
1) 가족스트레스의 개념	12
2)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18
3. 가족탄력성	20
1) 가족탄력성의 개념 및 요인	20
2) 가족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경향	29
4.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31
1)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이해	31
2)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법	32
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경향	35

5.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36
1)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36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41
Ⅲ. 연구 방법	48
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48
2. 용어의 정의	50
3. 측정 도구의 구성과 내용	52
4.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61
5. 자료의 분석 방법	62
Ⅳ. 연구결과	64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64
2.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	66
3.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집단간 차이	69
4. 배경변인과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86
Ⅴ. 논의 및 결론	91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 표 - 1 > 학자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구성요인	24
< 표 - 2 > 가족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53
< 표 - 3 > 가족탄력성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58
< 표 - 4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의 문항 수 및 신뢰도	61
< 표 - 5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65
< 표 - 6 > 조사 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일반적 경향	68
< 표 - 7 >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차이	71
< 표 - 8 >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차이 - 신념체계	73
< 표 - 9 >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차이 - 조직유형	75
< 표 - 10 >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차이 - 의사소통 과정	78
< 표 - 11 >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 문제해결지향	81
< 표 - 12 >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 문제해결기술	85
< 표 - 13 > 배경변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 치는 영향	89

그 립 목 차

< 그림 - 1 > 수직적 · 수평적 스트레스원	15
< 그림 - 2 > 연구모형	49

I. 서론

1. 문제 제기

중년기는 성공적인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인 변화들을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신체적으로는 실질적인 노화가 진행되며, 특히 여성의 폐경이나 남성의 생식능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에 더해 자녀양육, 노부모 부양, 직무수행 등 가족 및 사회관계로부터 오는 심리적 변화나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점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퍼져 있는 담론이나 여러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중년기는 한마디로 변화와 스트레스의 시기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중년기는 또한 가족에 깊이 관여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양육에 관해서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관심과 활동을 보이고 있고, 이 밖에도 가족생활주기가 바뀌어 감에 따라 재정립해야 하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년기의 가족관계에서 오는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는 매우 크리라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커다란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중년기는 소위 '샌드위치 세대(sandwiched generation)'로서 위로는 노부모 세대, 아래로는 자녀세대로부터 부양과 양육, 경제적 문제 등 여러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며, 부모역할과 자녀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내야만 하는 과도한 역할부담에 시달리게 된다. 이러한 가족관계에 대한 부담감, 역할부담 및 역할갈등 등은 중년기 가족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이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건강의 악화, 가족 간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악화시키고 그 기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는 비단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성 및 건강성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 짐작할 수 있으며, 결국 중년기 가족스트레스는 개인 및 가족의 안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년기 가족에서 또한 살펴보아야 할 부분 중 하나는 가족탄력성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가족탄력성은 과거 결점 관점(deficit perspective)에 기반을 둔 가족스트레스 연구에서 강점 관점(strengths perspective)이나 탄력성에 기반한 연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으로써, Silliman(1994), McCubbin과 동료들(1993), Walsh(1998) 등은 의사소통, 신념체계, 가족형태, 가족자원, 응집성과 연결성 등 여러 가지의 가족탄력성 요인을 밝혀내었다(김안자, 2005). 이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고위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적응·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응적이고 탄력적인 특성을 갖는 능력으로써,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적응과 회복이라는 해결 및 건강성에 초점을 두는 강점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가족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많이 존재하는 중년기 개인 및 가족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한 특성이라 짐작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응과 회복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을 연결 지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중년기에 대한 가족관련 이슈 뿐 아니라 그 밖의 일상적·사회적 이슈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여러 모임의 구성원, 직장동료, 친지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나 직무수행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시기로, 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따라서 중년기에는 이 시기의 특성상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및 문제 상황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일상적인 스트레스 및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능력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개인이 몸담고 있으며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차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가족이 개인의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에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때, 그가 속한 가족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문제해결능력을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가족과 연관 지어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 그리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중년기를 가족차원 및 강점관점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현재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요보호 가족 등에 관한 이슈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녀양육, 부부관계 및 사회적 관계망의 재정립, 노부모 부양, 직무수행 등의 과중한 역할수행과 발달과업을 달성해야만 하는 중년기는 인간의 생애주기 중 가장 큰 위기이자 전환기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발달과업들은 대부분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그 성패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중년기에 대한 시각을 비단 개인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차원으로까지 넓히는 연구는

학문적·실제적으로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더해 중년기는 발달과업에 따라 적응, 재정립 등의 탄력성이 필요한 시기로, 중년기를 문제 상황에 개입하여 변화시켜주어야 할 대상으로만 국한시켜 바라보기보다는 건강성이 내재되어 있는 대상으로써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중년기에 대하여 결점관점과 강점관점의 양쪽 측면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년기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차원에서 벗어난 가족차원의 연구라 하더라도 부부관계에 국한된 경우가 많고, 중년기의 정체성, 자존감, 생활만족도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로서 결점관점에 기반한 개인의 심리·정서적 부적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김은아, 1992; 박금자, 1999; 이경자, 2007; 임효영, 2001; 조예경, 2002; 진명훈, 2008; 홍선경, 1996; 황주연, 2007).

이에 본 연구는 결점관점과 강점관점에 입각하여 중년기 가족적 측면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하여 40~50대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과 개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가족 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다.

둘째, 가족 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배경변인별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 가족 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기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적 측면을 심도 있게 조망하여 중년기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둘째, 중년기를 결점관점만이 아닌 강점관점에서도 바라보아 중년기에 개입되어야 할 상담 및 교육적 측면의 특성을 알아보는 동시에 중년기에 내재된 건강성의 측면을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셋째, 중년기에 대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는 중년기를 가족적 차원에서, 그리고 결점관점과 강점관점 양쪽에 입각하여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를 통해 중년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중년기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중년기의 이해

1) 중년기의 개념 및 특성

(1) 중년기의 개념

중년기는 노부모와 성장한 자녀의 중간에 위치한 세대로, 개인적 발달의 관점에서는 신체적·생물학적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또한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갖는 시기이며, 사회적 관점에서는 사회·직업 측면에서의 대인관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절정기에 달하였으나, 더 이상의 성취보다는 하강과 은퇴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김명자, 1989).

정신역동적 이론에 기초하여 중년기에 관한 개념을 처음으로 발전시킨 Jung(1950)은 중년기를 시기적으로 행동과 의식의 전환기로 보고 40세를 전후하여 개별화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조건이 제시되는 시기로 보았다(김명자, 1989). 한편, Erikson(1963)은 중년기를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중 생산성과 정체성의 발달과업을 갖게 되는 시기로 보았는데, 이때의 생산성이란 가장 중요하게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지만, 이뿐만 아니라 작업을 통해 물건을 만들거나 사상을 전수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생산성은 다음 세대가 일하며 살아갈 사회 지침을 확립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보호의 미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체되고 황폐화되며 자아도취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발달과업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노년기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심리적, 신체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았다. Levinson(1980)은 Erikson(1963)의 자아정체감 위기와 같은 맥락에서 중년기를 정의했는데, 모든 중년기는 현재의 자아가 되기 위하여 전 단계에서 우선시 했던 면과 도외시 했던 면이 있기 마련이며, 이 시기에 도외시 되었던 면이 출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둘 지에 대해 당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년기 전환기에 당면한 개인은 필연적으로 위기감을 겪게 된다고 보았다(이명주, 2002; Weller, 1983). 또한 Rubin(1979)은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로서 중년기를 생물학적·문화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부모역할이 감소하며, 개인적으로 독립적·자율적인 존재로서 자아의 욕구와 필요성, 성장발달 등에 관심이 증가되는 시기로 정의하였다(이명주, 2002; Rubin, 1979).

결국 중년기는 생애주기의 한 부분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며, 여러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중년기를 자녀 독립이 시작되는 40세경부터 노년기가 시작되는 60세 이전까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년기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인간발달의 과정 중 한 단계이므로 심리·정서·사회적 요인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하여 구분되고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크게 생활연령과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생활연령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면 Gould(1978), Jaques(1965), Sheehy(1976)의 경우는 35~45세로 정의하며, Havighurst(1972)는 35~60세로 구분하여 35세부터를 중년기로 보고 있는 반면, Jung(1950)은 40세 전후, Erikson(1956)은 40~60세, Neugarten과 Gutmann(1958)은 40~70세, Levinson(1978)은 40-45세를 중년기로 구분하였다(김명자, 1989, 재인용). 한편, 국내연구에서 김재은(1983)은 40~60세, 김애순(1993)은 35~60세, 김명자(1989)는 40~59세로 구분하여, 학자마다 다른 연령 구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년기는 생물학적·사회적·직업적으로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로, 이를 가족생활주기별로 구분해보면, Deutscher(1969)의 경우 사춘기 자녀 동거부터 독립까지를 중년기로 정의하고, Lowenthal 등(1975)은 막내자녀의 고교 재학 기간, Duvall(1977)은 막내 자녀 독립의 시기를 중년기로 보았다. 국내연구에서는 유영주(1985)가 막내 자녀 독립시기를 중년기로 구분하여 가족생활주기별 구분 또한 학자마다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년기는 생활연령이나 가족생활주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동거가족의 증가, 이혼 및 재혼가족의 증가,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이 출현하고 이에 따라 신혼기부터 시작되는 가족의 가족생활주거나 재혼으로 시작되는 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등 다양한 가족들의 생활주기가 서로 상이하다. 즉, 현대 서구사회나 우리사회에서나 가족생활배열에서의 다양한 변화들은 가족들이 유사한 경로를 거친다는 가정에 기초한 가족생활주기 개념을 적용시키기에 많은 제한점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가족의 경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도 서구의 경우처럼 독립한다기보다는 결혼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지속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신혜섭, 2006), 자녀 결혼 후에도 부모가 도움을 주는 등 중년기 가족을 표현하는 “진수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가족생활주기보다는 생활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보고, 중년기를 생활연령으로 구분한 김명자(1989)의 정의에 따라 중년기를 40~59세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중년기의 특성

중년기는 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갈등과 상실 등의 위기 또는 인생의 전성기나 황금기라는 안정적 특성을 가진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발달과업을 바탕으로 신체적·정서적·사회적 특성을 갖는 시기로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년기를 위기로 보는 관점에서는 중년기의 특성으로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서 경제적 책임 증가와 세대 간 갈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기관점에서의 중년기는 체력·건강·회복능력 등이 저하되고 직업생활에 있어 최고점에 달하는 시기로, 더 이상의 승진은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직업에 대한 실망이나 분노, 권태에 빠지기 쉽고, 젊은이들의 지속적인 승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시기이다. 이에 더해, 진학이나 독립 등으로 자녀가 부모의 곁을 떠나기 시작하며, 노부모나 배우자 혹은 친구의 사망 등과 같은 정서적 상실감이 증가함과 동시에 결혼생활에서도 권태감이나 안일감에 빠지는 시기적 특성을 띤다(김명자, 1998). 이러한 관점에서 중년기를 '제2의 사춘기' 또는 노부모와 성인 자녀의 중간에서 이중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샌드위치 세대(sandwiched generation)' 등으로 표현하며 중년기가 긴장과 갈등·상실감의 시기 즉, 위기의 시기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년기를 인생의 전성기로 보는 관점에서 중년기는 새로운 자유감의 시기, 자신의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대하여 최대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기이다. 직업생활에서는 일에 대한 인지적 의사결정능력이 증가하고, 높은 지위와 수입을 확보하며, 비교적 양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누리고, 조부모가 되면서 가족관계망과 사회적 역할이 확산되는 시기이다. 또한 전 단계와 비교했을 때, 결혼생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시기이다(김명자, 1998). 즉, 중년기는 개인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

하며, 의사결정능력이 증가되는 시기로, 절정에 달한 직업지위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Borland, 1978; Rosenberg & Farrell, 1976).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년기에 대하여 어느 한 관점에서만 이해하기 보다는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전환기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Farrell & Rosenberg, 1981).

한편, 중년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 부부간의 애정 재확립과 중년기 위기의 극복, 직업 활동에 대한 몰두와 여가선용 등이 중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라 할 수 있다(권중돈·김동배, 2005).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고 은퇴 및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중년기의 이와 같은 발달과업을 바탕으로 중년기의 특성을 신체적·정서적·사회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신체적 특성으로 대부분의 중년기 성인들은 비교적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지만, 이 시기부터 신체적 능력과 건강의 감퇴를 보인다. 40세 이후부터는 신진대사활동이 둔화되면서 허리둘레와 체중이 늘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며, 활기를 잃고 육체적인 힘이 약화되기 시작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질 뿐 아니라 질병에서 회복되는 데 소요시간도 늘어나게 된다(권중돈·김동배, 2005).

다음으로 정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중년기에는 신체적·생리적 변화에 대한 위협감과 불안, 자녀의 물리적 혹은 심리적 독립에 따른 역할갈등 및 상실감으로 인해 자아의식의 위기, 우울, 고립, 위축 등 크고 작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빈둥우리 현상'으로 인해 가족생활과 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오는 정서적 갈등,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역할,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Neugarten(1977)은 결혼, 출산, 자녀독립 등을 적기에 이루지 못하거나 이혼, 자녀의 죽음, 질병, 경제적 붕괴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정서적 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김애순, 1993, 재인용). 한

편 Erikson의 개념을 확장한 Peck(1968)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 또 어떤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정서적 투자를 전환할 수 있는 정서적 유연성이 중년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 시기는 부모와 친구의 죽음 및 자녀의 성숙과 독립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기 쉬운 때라 하였다. 또한 자신이 정서적 투자를 했던 대상이 사라짐으로써, 혹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재투자하지 못함으로써 정서적 고갈을 경험하게 되며, 이 때 새로운 정서적 투자의 대상을 발견하게 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한 마디로, 중년기는 다양한 생의 변화를 한꺼번에 겪게 되는 시기로,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중년기는 활발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원 이외의 친족 관계망, 직업 관련 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외적 압력이나 요구로부터 자신의 생활과 가족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관계망과 가족생활 간에 역동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최정숙, 2007).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중년기는 위기이면서도 안정적인 특성을 함께 갖는 복잡한 시기이며, 개인적·사회적인 변화를 동시에 겪게 되는 시기으로써, 이로 인한 심리·정서적 변화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적응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년기의 특성은 중년기가 모든 측면에서 청소년기만큼 복잡한 시기이며, 단순히 통과의례처럼 생의 한 단계로서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는 특별한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2.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1) 가족스트레스의 개념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elye(1974)는 외적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심리적 혹은 신체·심리적 장애반응으로 보았으며, Ivancevich와 Matteson(1980)은 스트레스를 개인의 성격이나 심리적 과정에 의해 중재되는 적응 가능한 반응으로서, 특수한 신체적·심리적 요구가 있는 외적인 행동이나 상황, 사건의 결과라 하였다. Holmes와 Rahe(1967)는 위협을 주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자극으로 보았으며, Fleming과 그의 동료들(1984)은 스트레스를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위협이나 위협에 대한 지각과 반응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오세진 외, 1996; 김정원·신은영, 2001). 이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되어 온 스트레스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다. 이 개념은 생물학에 근거를 둔 것으로 신체에 가해진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하여 신체가 행하는 일반적이고도 불특정한 반응을 말한다. 그러나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서로 다른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반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정원·신은영, 2001).

둘째,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이다. 이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 자체를 말하는 스트레서(stressor)로, 개인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며 객관적으로 기술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자극으로 본다. 이러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생활사건(life events)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으나,

특정 생활사건이 개인에게 어떤 심리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셋째, 환경적 자극요인과 개인의 개별 특징적 반응 간의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과 자원을 초과하거나 개인이 요구하는 것을 환경이 마련해주지 못할 때 야기된다고 보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를 자극과 반응으로 보던 관점은 이후 인지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외부로부터 위협을 지각하는 것에서부터 이에 반응하는 것까지의 모든 과정을 스트레스로 보았다. 다시 말해,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를 강조하여 개인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환경적 요소를 중요시 하였다(김안자, 2005).

그러나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외부자극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반응을 의미한다. 즉, 우울, 초조감, 긴장, 분노와 같은 부정적 반응뿐 아니라 즐거움, 흥분과 같은 반응까지 자극에 대한 모든 반응을 스트레스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자존감과 성실성, 복지 등을 위협하는 일종의 심리적, 신체적 반응이라 볼 수 있으며, 개인의 심리적인 자원을 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한다(정현숙, 2001). 이러한 스트레스는 때때로 부담스럽고 그것에 압도될 때도 있으나, 우리의 능력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성장 과정에 필연적인 것이며, 결국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개인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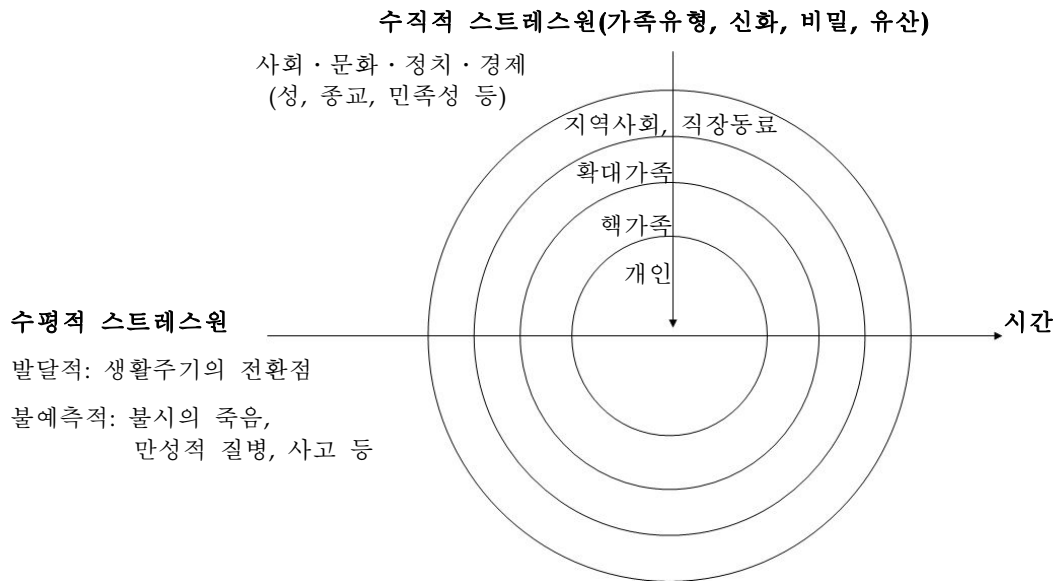
(2) 가족스트레스의 이해 및 이론

가족스트레스는 가족이 직면한 요구와 스트레스를 다루는 가족의 능력 불일치의 결과이다. 요구와 능력의 불일치가 나타날 때 가족은 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McCubbin et al., 1993). Taylor(1983)는 각 가족마다 스트레스와

위기에 적응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한다. 우리가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문제와 아울러 가족의 위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란 불가능하며, 아무리 건강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 내의 문제와 생활사건 및 가족의 변화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가족문제와 가족위기는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며, 가족학 분야에서는 특히 가족 스트레스나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다(정현숙·유계숙, 2001).

Boss(1987)는 가족스트레스란 안정된 가족의 상태에 혼란을 일으키는 압력으로, 개인과 가족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달·변화하는 과정이며,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족체계 내의 긴장과 압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가족스트레스 자체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지 않으므로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보다는 이에 직면하여 가족이 어떻게 인지하고 적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Carter와 McGoldrick(1998)은 가족생활주기상의 변화에 따라 가족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원을 연구하여 수평적 스트레스와 수직적 스트레스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가족수준에서 수평적 흐름이란 시간에 따른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와 전환을 극복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평적 흐름에는 생활주기의 교정을 깨뜨리는 급작스런 불운 - 조기사망, 장애아 출생, 이민, 만성적 질병 등 예측 가능한 발달상의 스트레스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있다. 이러한 수평적 흐름에 지나친 긴장이 가해지면 어떤 가족이라도 역기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정문자, 2000). 한편, 수직적 스트레스는 가족 유형, 신화, 비밀, 유산 등을 들 수 있다. 이 때 수직적 흐름에 부담이 가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수평위치에 조금만 스트레스가 가해져도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서 체계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이영분 외, 2005).



<그림1> 수직적 · 수평적 스트레스원

* 출처: Carter & McGoldrick(1998), 정문자 옮김(2000). 가족생활주기와 치료적 개입. 중앙적성출판사.

가족스트레스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족 내에서의 개인 뿐 아니라, 가족 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처음 연구한 것은 1930년대 경제공황 하에서의 사회학자들이었다. 이 시기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주요 스트레스원은 가족의 경제적 곤란이었다(Boss, 1988). Angel(1936)은 가족의 경제적 곤란이라는 상황 하에서의 가족의 반응을 응집력과 적응력으로 설명하면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족에게는 적응력이 응집력보다 더 결정적이라고 하였다(Boss, 1987).

Rice(1987)는 가족과 스트레스 연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첫째, 스트레스는 가족 내 어느 특정 성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일이 드물다. 또한 가족성원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양식은 다른 가족성원이 감내해야 하는 부담과 반응양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 가족 자체가 스트레스의 출현기회를 제공한다. 즉, 가족생활주기를 통한 여러 삶의 사건들은 즐

거음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내재하고 있다. 셋째, 가족은 최우선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출처가 된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원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하며, 다음에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후 사회에 원조를 기대한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김안자, 2005). 결국, 가족과 스트레스는 불가분의 관계로써, 이러한 의미에서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와 이론의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Hill(1949, 1965)은 스트레스 상황 발생의 인과모델로서 위기상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과 그러한 사건 발생시기의 가족자원, 그리고 가족이 사건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위기상황을 설명하는 ABC-X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 가족 적응력과 관련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응집력, 과거에 위기를 극복한 경험 변화에 대한 가족의 지각 및 판단이 상호작용하여 위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최동희, 1990). 다시 말해, 사건(A), 사건에 대처하는 가족자원(B), 사건에 대한 가족인식(C), 위기수준 또는 위기발생여부(X) 등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족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수준 또는 위기발생여부(X)는 A, B, C 세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가족의 대처능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Vosler, 1996).

이 후 McCubbin과 Patterson(1993)이 ABC-X 모델을 발전시켜 Double ABC-X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최근 가족스트레스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론으로, 위기 이후 나타나는 스트레스 누적(pile-up)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내용의 준거틀을 제시하였으며,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기의 예방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과 인식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의 대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Double ABC-X 모델은 가족탄력성 모델의 기초가 되기도 한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가족스트레스 모델로는 Koos가 제안하고 Hill이 정교화 한 Roller-Coaster 모델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위기에 대한 적응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가족의 적응과정은 가족이나 위기의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된 사실은 위기-해체-회복-재조정 과정이라고 하였다(Boss, 1987). 가족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사건을 경험한 이후 위기에 직면하는데, 어떤 가족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Hill의 ABC-X 모델과 Roller-Coaster 모델의 차이를 살펴보면, ABC-X 모델은 단지 가족생활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Roller-Coaster 모델은 가족의 재적응 과정을 통한 가족의 회복력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Boss, 1975).

한편, Burr(1973)는 Hill의 ABC-X 모델을 수정하여 취약성과 재생력의 개념을 도입시켜, 이후 가족스트레스 연구와 이론의 설립에 자극을 주었다. Burr의 모델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과 거기에 수반되는 곤란성, 그리고 가족의 취약성은 가족의 위기량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내리는 가족의 정의는 위기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수적으로 위기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가족능력의 차이로서 재생력을 설명하고 있는 Hansen의 정의를 도입한 Burr는 재생력이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으로부터 초래된 혼란을 회복하기 위한 가족체계의 다양한 능력이라고 하였다(강인, 1989).

이상과 같은 가족스트레스 이론을 살펴보았을 때,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스트레스 그 자체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위기로부터의 회복력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았을 때,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이로부터 가족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회복력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가족스트레스와 가족 탄력성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의 관계는 가족 및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암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대부분의 가족생활주기를 따라 진행되는 생활사건과 전이들은 예측 가능한 일상적인 것이지만 새로운 수준의 조정, 재조직, 통합, 적응을 해야 하므로 각 전이마다 변화가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다(McCubbin & Patterson, 1993). 따라서 결혼, 부모됨, 중년기와 같은 생활사건과 전이들은 가족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가 있다. 가족이 성장 발달해 감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의 구조와 구성원 간의 역할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긴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스트레스를 개인과 가족의 발달론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년기 가족은 자녀가 집을 떠나기 시작하여 두 부부만이 남는 시기로서 부모의 역할과 규칙을 변화시켜야 하며, 부부의 재적응이 요구된다(Olson et al., 1983). Boss(1985)는 자녀의 독립은 중년기 가족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생활사건이라고 하였으며, McClelland(1976)는 중년기에 자녀가 집을 떠남으로써 부부간의 새로운 역할 조정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일상적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은 자녀가 결혼하기 이전에는 집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녀의 독립은 빈번한 생활사건이 아니며, 부모는 여전히 자녀 양육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동시에 노부모와의 관계도 긴밀하여 여러 역할의 동시수행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년기 가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년기 가족의 스트레스는 가족 및 대인관계, 재정문제, 건강, 자녀의 진로문제, 직장문제, 사망의 문제 등 중년기 발달단계상의 특성과 관련되어 고찰된다(신혜섭, 2006). 김명자(1991)는 중년기 부부 모두가 비교적 빈번하게 경험하는 생활사건은 자녀의 진로문제, 자녀와의 갈등, 부부간의 불화나 성생활 불만,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부모나 기타 가족원의 질병 등

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우리나라 중년기 가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의 교육으로 인한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부부에게 스트레스가 높은 사건은 경제적 문제, 자녀문제와 부모의 사망인데, 동일한 사건을 부부가 경험한 경우에도 부인의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남편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김명자, 1991; 이평숙, 1984; 신혜섭, 2006; Boss, 1988).

중년기는 또한 청소년 자녀와의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동숙(1989)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중년기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최연실(1996)은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지나친 감정적 유대가 심리적 긴장으로 심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를 살펴보면, 중년기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력이 큰 시기로서 경제적 안정감이 개인의 심리, 정서적 안녕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신혜섭, 2006). 김명자(1989)의 연구에서는 도시주부들이 인지하는 경제적 곤란수준과 중년기 위기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정자 외(1996)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곤란이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 또한 중년기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최은경(1993)에 의하면 중년기 남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생순위가 첫째일수록 이러한 부양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중년기에도 독립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요구와 노부모의 경제적·심리적·사회적 부양의 요구, 자신의 노화과정에서의 적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게 된다. 신혜섭(2006)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양육은 예측 가능하고 사회적 역할이 비교적 분명한 사건인데 비해, 노부모 부양의 요구는 예기치 못한 사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를 돌보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부모가 병약해질 가능성을 무시하고 그에 대해 거

의 준비하지 않으며,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때는 자신의 다른 책임과 계획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양의 의무는 중년기 후반의 주요한 스트레스원이 되는 것이다. 중년기는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중간세대로서 두 세대 모두에게 정서적·물질적 자원의 주된 제공자라는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장 클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 남녀 모두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 발생 빈도 및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강인, 198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기는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노부모와의 관계 등 가족스트레스 발생률이 매우 높은 시기이며, 이러한 가족스트레스는 가족과 개인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가족탄력성

1) 가족탄력성의 개념 및 요인

(1) 가족탄력성의 개념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되돌아오는 경향’, ‘회복력’, ‘탄성’으로써,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역기능 상태에서 다시금 기능적으로 돌아오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다. 즉 탄력성은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기능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로 ‘전혀 상처받지 않음(invulnerable)’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Luthar(1991)에 의하면 탄력성이란 오히려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조차 영향을 거의 받지 않거나 덜 받으며, 유능감(efficacy)으로 스트레스 상황

에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였다(김미옥, 2001). 즉, 탄력성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역동적 과정이며, 역경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좋은 성과, 스트레스 하에서도 유지되는 능력,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Cicchetti & Rogosch, 1997).

이러한 탄력성의 개념은 개인탄력성의 개념에 먼저 도입되었다. 1970~80년대 아동발달 및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정신장애를 가진 부모의 아동, 혹은 역기능적인 가족의 아동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 혼란과 역기능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는 아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 탄력적인 개인은 위협이나 장애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이라는 '위험요인(risk factor)' 뿐 아니라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하는 '보호요인(protective risk)'이 함께 있으며 이는 예방과학에 기초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일단의 선행연구(김미옥, 2001; Garmezy, 1974; Luthar & Zigler, 1991; Masten, Best, & Garmezy, 1990; Moriarty & Murphy, 1976; Dugan & Coles, 1989; Rutter, 1985, 1987; Simeonsson, 1995)를 통해 개인탄력성의 개념이 확립되었는데, 개인의 감정 차원을 조절하고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좌절하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의 탄력성은 자아탄력성이라 불리며,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역경 혹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보이지 않는 개인의 내적 능력으로써 인간 적응력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연구되었다.

'탄력성'의 개념이 가족에 도입된 것은 개인탄력성 개념이 출현한 시기보다 조금 늦은 1990년대 후반으로, 개인탄력성과는 달리 가족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된다. 가족학자들은 고위험 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가족을 발견하고, 이러한 가족이 고위험 상황에서 생존하는 개인탄력성 개념과 유사하다고 간주하여 가족탄력성이라 명명하게 되었다(김미옥, 2001).

이러한 가족탄력성은 특히 가족강점에 기반하여 연구되면서 고위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가족의 자질 혹은 가족의 적응적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두게 된다. 강점관점은 문제에 대하여 병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는 병리적 관점과 달리 가족의 적응적인 능력, 재생능력, 건강성 등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강점관점은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결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결국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적응적이 되고, 변화에 직면하여 혼란에 저항하도록 돕는 가족의 특징이자 차원이요, 속성’(McCubbin & McCubbin, 1988)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는 곧 스트레스에 직면한 가족의 적응적인 자질에 초점을 두고, 특히 대처, 인내, 생존을 증진시키는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다(McCubbin, McCubbin & Tompson, 1993). 또한 가족탄력성이란 가족 단위에서 부딪치는 위기, 변화, 스트레스원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가족의 잠재력 또는 가능성이며(Danielson, Bissell & Fry, 1993), 가족구성원의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변화에 대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것(Walsh & Olson, 1989)이다. 따라서 가족탄력성 개념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대처, 적응, 기능적 적합성과 균형의 획득이 강조되며, 가족 구성원 모두의 협동, 체계들 간의 관계적 탄력성을 통한 도전, 극복의 과정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가족탄력성의 개념은 이전의 문제 중심, 결점 중심적인 병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탄력성의 관점에서는 가족스트레스나 위기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가족체계에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도전으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역경이나 어려움을 가족에 혼란을 야기하여 가족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가족의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의 역량을 실현해 나가도록 돕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은 건강성을 회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가족탄력성의 관점에서는 또한 가족이 역경과 위기,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한다고 본다. 따라서 탄력적인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념을 보여주고 해결을 위한 자신감과 냉정한 탐구로 낙관주의적 관점을 가진다(Beaver & Hampson, 1990).

요약하면, 가족탄력성은 가족 그 자체를 한 단위로, 위기와 역경에 대하여 긍정적인 해결과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자신들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성장·발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가족탄력성의 요인

가족탄력성의 요인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Cowen과 Hetherington(이선애, 2004, 재인용)은 가족탄력성의 요인으로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과 신념체계를 제시하였고, Silliman(1994)은 위임, 의사소통, 응집성, 적응성, 영성, 연결성, 시간공유, 효율성 등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Barnard(1994)는 부모와 아동 간의 적합성, 가족의식, 긍정적 수용성, 가정 내 갈등의 최소화, 청소년기 동안의 이혼부재, 아동과 생산적인 관계 등을 가족탄력성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Singer와 Powers(1993)는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유연한 의미해석, 균형 잡힌 대처, 유연한 상호의존을 제시하였다.

한편 McCubbin 과 그의 동료들(1993)은 가족형태, 가족도식,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 등을 제시하고, Walsh(1998)는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을 가족탄력성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탄력성의 요인은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학자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구성요인

연구자	가족탄력성 요인
Barnard(1994)	부모와 아동 간의 적합성, 가족의식, 긍정적 수용성, 가정 내 갈등의 최소화, 청소년기 동안의 이혼부재, 아동과 생산적인 관계
Cowen과 Hetherington(1991)	응집력, 유연성, 공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신념체계
McCubbin 과 그의 동료들(1993)	가족형태, 가족도식, 가족자원, 가족기능, 문제해결과 대처, 사회적 지지
Silliman(1994)	위임, 의사소통, 응집성, 적응성, 영성, 연결성, 시간공유, 효율성
Singer와 Powers(1993)	유연한 의미해석, 균형 잡힌 대처, 유연한 상호의존
Walsh(1998)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

가족탄력성 모델의 대표적 학자는 McCubbin과 Walsh라 할 수 있다.

McCubbin의 가족탄력성 모델은 Hill(1949)의 ABC-X 모델에 그 기원을 두는 것으로, McCubbin과 Patterson(1983)에 의해 Double ABC-X 모델로 확장되었다가 후에 '가족조절과 적응의 유형 모델(Typology Model of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1987)'로 발전되었다. 이로부터 가족탄력성을 가족차원의 구조로 보고 이를 강조하면서 '가족스트레스, 조절 및 적응의 탄력성 모델(The Resiliency Model of Family Stress)'이 확립되었다.

McCubbin과 McCubbin(1993)의 가족탄력성 모델의 핵심은 가족 내 긴장이 발생하면 가족 내구력, 인지평가, 의사소통, 사회적 지지 등의 영향에 따라 가족원의 신체적·심리적 안녕감을 이루는 가족 적응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김은지, 2007). 즉, McCubbin의 모델에서 탄력성이란 개인과 가족의 스트레스 혹은 역기능적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행동패턴 및 기능적인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 스트레스는 가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하나의 도전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도록 힘을 부여하는 가족강점과 능력 강화에 연구 및 개입의 초점이 있다(Luthar, 2000).

한편 Walsh(1993)는 가족탄력성을 발달시키고 구성하는 요인들을 제시하여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시킨 결과, 가족탄력성의 요인을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의 세 가지 차원으로 밝혀내었다. Walsh는 가족탄력성을 가족과정의 차원에서 구조·기능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강점관점으로 제시하였는데, 가족의 위기나 스트레스보다는 이에 대한 적응과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가족의 역동적 특성을 잘 반영한다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가족의 역동적인 과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Walsh의 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Walsh의 세 가지 가족탄력성 요인은 각각 세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나뉘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념체계(Family belief systems)

Walsh(1998)에 의하면 신념체계는 모든 가족기능의 핵심이며 레질리언스의 강력한 힘이다. 가족은 문화와 유사경험에 기초하여 공유하고 있는 신념을 발전시키고, 이러한 공유된 신념체계를 통해 세계관과 가족의 위치를 지각하며, 가족구성원이 사건과 행동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Reiss, 1981). 또한 신념은 행동을 활성화하거나 억제시키며, 행동과 그 결과는 신념을 강화 혹은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결국 신념과 행동은 상호 의존적이다(김안자, 2005; Anderson & Goolishian, 1988; Gergen, 1989; Hoffman, 1990). 이러한 지적은 가족의 신념체계가 세계를 바라보는 렌즈와 같으며, 신념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가족의 위기나 스트레스에 대한 관점 및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Walsh는 이러한 신념체계의 하위요인으로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 긍정적 시각, 초월과 영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Making meaning of adversity)은 가족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탄력성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Antonovsky & Sourani, 1988; Patterson & Garwick, 1994). 탄력적인 가족은 역경을 하나의 도전과제이자 성장의 발판으로 인식하여 역경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명확화 하는 능력은 더 쉽게 인내하고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양옥경 외, 2002).

둘째, 긍정적인 시각(Positive outlook)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한 가족의 탄력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탄력적인 가족은 역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족강점과 가능성을 확신한다. 특히 역경에 직면하여 '잘 투쟁하는' 능력인 인내는 탄력성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또한 잘 기능하는 가족이란 희망을 유지하며 스스로 노력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경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진 가족은 강점과 잠재력에 초점을 두고, 가능성을 인정하며 동시에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수용하고 인정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셋째, 초월과 영성(Transcendence and spirituality)은 더 큰 가치와 목적을 지향하며, 역경을 통하여 학습하고 성장한다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탄력적인 가족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기 안에 안주하지 않고 친척·사회적·지지적 종교체계 및 전문가를 찾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

려 한다. 또한 잘 기능하는 가족의 경우 문제의 원인을 단선적 시각에서 보지 않고 순환적 관점에서 보며, 성공과 실패가 노력에 달려있다고 보고 완전한 성공이나 실패는 없다고 본다.

②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s)

가족의 조직유형은 가족 단위의 통합을 지지하고 관계를 정의한다. 또한 행동을 규제하고 내·외적 규범을 유지하며 문화 및 가족의 신념체계에 의해 강화되는 것으로, 가족의 조직유형은 역할 안정성 및 융통성, 연결성, 그리고 가족과 사회·경제적 자원을 통해 형성된다(Walsh, 2003).

첫째, 역할안정성 및 융통성(Flexibility)은 가족이 조직과정에서 안정성(homeostasis)과 변화(morphogenesis) 사이의 역동적 조화를 통해 생활도전에 반응하며 변화를 허용하는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Watzlawick, Beavin, & Jackson, 1967; Minuchin, 1974). 이 때 안정성이란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규칙, 역할, 상호작용 패턴을 말하며, 융통성은 필요할 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탄력적인 가족은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각 구성원 간의 탄력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위기에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즉, 평소에는 안정된 역할분담 형태를 띠며, 위기 시 역할분담에서의 융통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안정성 및 융통성을 통하여 가족은 역동적인 한편, 안정된 가족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연결성(Connectedness)은 가족 응집력의 개념과 비슷한 것으로, 구성원 서로에 대한 정서적 연대감을 의미하며(Olson, 1993), 연합, 상호지지, 분리와 상호협력, 자율성 등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잘 기능하는 가족은 구성원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유지하고, 구성원들은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에 책임을 가지며, 개인의 강점과 관심을 잘 조직할 수 있다(김미옥, 2001).

셋째, 사회·경제적 자원(Social and economic resources)은 가족이 위기 상황에서 내·외적 환경자원을 얼마나 잘 조직하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잘 기능하는 가족은 개방체계를 유지하며, 구성원들은 활동적으로 세상에 참여하고,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외부로부터 유용한 자원을 끌어들인다. 따라서 탄력적인 가족은 가족 주변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③ 의사소통 과정

의사소통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실제적, 도구적 문제해결 모두를 포함하는 정보의 교환이라 정의할 수 있다(Epstein et al., 1993). Walsh(1998)는 의사소통 과정의 하위요인을 의사소통의 명확화, 개방된 감정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의 명확화(Clarity)는 혼란을 주지 않는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교환을 말한다. 이러한 명확한 의사소통은 효율적 가족기능의 본질적 요소로(Beaver & Hampson, 1993; Epstein et al., 1993; Olson, 1993), 탄력적인 가족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애매하고 왜곡되거나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을 때 '마음 읽기(mind reading)'를 시도하거나 잘못된 가정을 함으로써 오해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이 침묵, 비밀, 왜곡을 통하여 고통스럽거나 위협적인 정보로부터 서로를 보호하려고 할 때 이해, 충분한 의사결정, 진정한 관계에 대한 장벽을 만든다. 특히 위기의 순간에 가능한 수준에서의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명료화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삶을 위협하는 질병의 지속성, 이혼 가능성, 혹은 자살에 대한 공유된 이해와 인정은 대처와 적응에 중요하다(Walsh, 양옥경 외 역, 2002).

개방된 감정표현(Open Emotional Expression)은 자연스럽게 감정과 욕구, 타인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사려 깊은 방식으로 전달된다(Beaver & Hampson,

1990). 개방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위기상황의 현실을 인정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의미를 부여하고 지지하며 생활을 재조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방적 감정표현이 가능한 가족은 즐거움, 희망뿐만 아니라 고통이나 공포 등의 광범위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족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감정이입이 요구되며, 가능한 비난은 피하고 자신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여기에 유쾌한 상호작용인 유머가 있다면, 가족탄력성 유지에 매우 긍정적이다(김미옥, 2001).

의사소통 과정의 마지막 구성요소인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Collaborative Problem Solving)은 특히 갑작스런 위기나 지속적 도전을 다루어야 하는 가족기능에 있어 매우 본질적이다. 기능적인 가족은 문제가 없는 가족이 아니라 문제를 함께 잘 다루어 나가는 가족이다. 가족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부나 가족기능에서의 협상과정은 중요하다(Beaver & Hampson, 1993). 탄력적인 가족의 특성은 갈등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잘 기능하는 가족은 문제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나 잠재적 자원을 가진 사람과의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2) 가족탄력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경향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McCubbin과 그의 동료들(1993)은 민족과 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둔 가족탄력성을 연구하였고, Patterson(1991), Singer와 Powers(1993) 등은 장애아동의 가족탄력성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Patterson(1991)은 장애아동 가족과 가족탄력성의 개념적 연결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로, 만성 질병을 가진 아동의 탄력적인 가족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Seccombe(2002)는 빈곤과 가족탄력성에 초점을 두었고, Conger와 동

료들(2002)은 경제적 문제와 청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두었다. 이 외에도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적응에 대한 연구(Wolin, 1993)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성공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변수들을 설명하면서 이들 가족 자녀의 가족탄력성에 관심을 두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장애아동 가족의 가족탄력성 요인으로 가족 적응을 분석한 경우와 한부모 가족의 가족적응을 분석한 경우가 특히 많다. 김미옥(2001)은 장애아동 가족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을 분석하였고, 윤수희(2004)는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의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구정화(2005)와 임유미(2006)는 가족적응에 대한 한부모 가족의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을 규명하였고, 김안자(2005)는 한부모 가족의 가족탄력성과 가족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상의 국내외 가족탄력성에 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문제 중심, 결점 중심적 관점으로 가족의 문제와 역기능적 측면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강점관점에서 가족의 회복력 내지는 탄력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형태와 가족형태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기능하게 하는 탄력성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탄력성이 많은 문제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기능 수행에 긍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아동이나 정신질환자 가족, 치매노인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년기 가족의 가족탄력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년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기이며, 생애주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고, 가족스트레스에 취약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가족탄력성에 대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년기의 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에 대한 본 연구는 매우 시기 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4.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1)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의 이해

사회적 문제해결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사회적 환경에 국한되기 보다는 사회학습과정과 사회적 기술에 의한 실생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미이다(Nezu, Nezu, & Perri, 1989). 따라서 사회적 문제해결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자기 생성적인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과정이다(D'Zurilla & Nezu, 1990). 또한 문제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잠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안들을 만드는 행동과정이며, 그런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서 가장 효율적인 반응을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과정으로도 정의된다(D'Zurilla & Goldreid, 1971). 사람은 해결해야 할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나 즉각 사용 가능한 효율적인 대안이 없을 때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 문제해결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사회적 문제해결과 유사한 용어로서 Heppner와 Peterson(1982)은 문제해결(personal problem solv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문제해결은 내적 또는 외적인 요구와 도전에 대하여 적응하기 위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과정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Shure(1981)는 대인관계 문제해결(interpersonal problem solv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인문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능'으로 보았는데,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상담이나 임상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행동과정의 여러 대안들을 확인하고 평가한 후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대처방식(coping style)과 의사결정(decision making) 유형과 본래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문

제해결능력은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제해결과정과 관련된 개념이며, 대처방식은 좀 더 일반적인 문제해결에 관련된 개념이다(D'Zurilla & Nezu, 1982). 또한 의사결정과정은 정보를 획득하고 처리하는 전략 사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종의 정보처리 전략과 같은 것이지만(Phillips et al., 1984),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수많은 정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후에 이를 평가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단순한 의사결정과정보다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대처방식이나 의사결정과정과 구분할 수 있으며,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접근방법

사회적 문제해결 모형은 이상적인 문제해결과정을 선정하고 그 과정에 따른 단계별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과정적 접근(Dixon, Heppner, Peterson & Ronning, 1979; D'Zurilla & Goldreid, 1971; D'Zurilla & Nezu, 1982)과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요소들을 강조하는 요소적 접근(Spivack & Platt & Shure, 1976; Spivack & Shure, 1974)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정적 접근을 강조하는 흐름에서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5단계 문제해결 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문제해결적 치료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문제해결과정의 체계적 분석은 바로 이들의 접근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문제해결과정의 이상적 5단계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 지향(general orientation), 문제의 규정과 구성화(problem definition and formulation), 대안적 해결책의 모색(generation of alternatives), 의사결정(decision making), 그리고 실행과 평가(implementaion and verification)이

다. 이 모형에서 제안하고 있는 일련의 단계들은 이상적인 과정을 묘사한 것으로서, 성공적인 문제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문제해결 단계를 근거로 D'Zurilla와 Nezu(1990)는 사회적 문제해결척도(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SPSI)를 개발해 내었다. 이들은 사회적 문제해결척도를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는데, 위의 5단계 중 첫 단계인 일반적 지향을 '문제해결지향'으로, 나머지 단계를 '문제해결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문제해결지향'은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동기적 요소로서,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대처형태의 지속적인 학습 결과가 내면화되어 형성된다. 초기 문제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문제지향성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인지적 반응은 문제에 관한 감수성,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 그리고 문제에 대한 사전 경험 등에 따라 문제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작용으로써 문제에 대한 지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제에 대한 이와 같은 인지적 과정은 정서적, 행동적 문제지향 반응으로 이어진다. 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개인적 특성은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등의 인지적 반응을 하고, 이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우울이나 불안의 정도가 달라지는 정서적 반응을 보이며, 결국 문제 상황을 회피하거나 적극성을 갖게 되는 행동적 반응을 보인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한 수용과 배타, 긍정과 부정, 자신감과 불안감, 적극과 소극 등과 같은 인지·정서·행동적 문제지향성은 문제해결 능력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해결기술'은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문제해결 기술을 포함한다. 첫 번째 기술인 문제규정과 구성화는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비교하고, 문제 상황을 구조적으로 나열해 봄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규정하는 과정이다. 둘째, 대안적 해결책의 산출은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조화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는 과정을

말한다. 셋째, 의사결정은 산출된 여러 대안들을 그 결과까지 고려하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넷째는 해결책 수행과 확인으로,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여 수행해 본 후 그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단계이다. 즉, 문제해결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기술로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대안을 생각해내어 그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수행한 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 과정이 문제해결능력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요소적 접근에서는 전반적인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고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해결능력이 단일요소가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매개체라고 생각되는 일련의 상호 관련된 사회적 기술들이라고 보는 것으로, 문제에 대한 민감도(problem sensitivity), 인과적 사고(causal thinking), 대안적 사고(alternative-solution thinking), 결과적 사고(consequential thinking), 그리고 수단-목적 사고(means-ends thinking)와 같은 능력들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능력들 중 사회적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단-목적 사고이며 Spivack과 Platt(1976)이 이를 바탕으로 수단-목적 문제해결 검사(Means-Ends Problem Solving: MEPS)를 개발하였다.

이 두 가지 모형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출발하므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상당히 인지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단순히 어떤 능력의 소유 여부로 보는 판단하는 관점보다는 전체적·단계적인 흐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과정적 접근을 따르기로 한다.

3)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국내외 연구경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연구는 여러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Dixon 과 동료들(1979), D'zurilla와 Nezu(1982), Frye와 Goodman(2000), Hanson 과 Mintz(1997), Spivack과 Shure(1974)등은 일반인, 청소년, 아동 및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상담적 측면을 접목하여 연구하였는데, 성공적인 문제해결자는 문제 해결 시 덜 충동적이고 문제 상황에 직면하며, 더 체계적이고 인내심 있게 문제에 대처했다. D'zurilla와 동료들(1998) Gotlib과 Asarnow(1979), Nezu와 동료들(1989), Zemore와 Dell(1983)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이 정신건강에 대한 결정적 요소이며, 문제해결기술의 부족이 부적합한 심리적 적응과 정신병리에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Nezu(1985)는 2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심리적 고통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스스로 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연구의 대상은 유아 및 아동, 일반 청소년, 대학생, 북한이탈 주민, 우울증 환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박민숙(1996)은 아버지의 대화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고, 왕정희(2001)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혜진(200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최효정(2006)은 실업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해결중심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이러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미정

과 안창일(1997)은 우울성향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북한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김현진(2008), 이태희(2003) 등은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이 높다고 지각한 북한이탈주민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다고 하였다.

중년기는 신체·정서·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개인·가족·사회적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하는 시기이며, 여러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며 적응해 나가야 하는 중년기에는 효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대상들 뿐 아니라 중년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연구가 함께 필요하다 생각된다.

5.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1)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사회적 기술을 통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인지, 정서, 행동적 과정과 이를 통해 문제의 효과적인 대안을 발견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생활 및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그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Frye와 Goodman(2000)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결함이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증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부족은 비사회화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참여의 부족과 철회(withdrawal)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였다(엄태완·이기영, 2004).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한 개인들은 적대감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동료들과 부적응적 상호작용을 맺게 되며, 이는 다시

환경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공격적인 개인이 비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보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낮고,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Spotts et al., 2001).

한편, Heppner와 Peterson(1982)은 자신의 문제해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문제수가 적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를 지니고 있으며, 성공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고, 충동적이거나 회피적인 경향이 적으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을 효율적 문제해결자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역기능적 사고나 비합리적인 신념이 적었고(Heppner, Reeder & Larson, 1983),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전략을 구사하는 경향이 있으며(Phillips & Ferrin, 1984), 심리적 안녕이 증가하였다(Hanson & Mintz, 1997). 반대로 자신을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로 지각하는 사람은 다양한 비합리적 신념을 가지며, 역기능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고경향성이 높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Mischel, 1981).

이처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결함이나 자신을 비효율적 문제해결자로 지각하는 것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개인과 가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볼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의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먼저 우울성향을 들 수 있다. Gotlib과 그의 동료들(1979)은 우울 집단과 비우울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우울한 집단이 문제해결 수단을 개념화 시키는 능력이 의미 있게 낮음을 발견하였고, Zemore와 Dell(1983)의 연구에서도 우울과 비효율적 문제해결이 의미 있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미정과 안창일(1997)은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일반적 문제 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즉, 우울한 사람들은 문제와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과 태도, 동기 면에서 부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상적인 문제해결책을 고안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Beck(1967)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미래뿐만 아니라 현실세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지각을 함으로써 일상적인 대인관계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다양한 정서적, 동기적, 행동적 결함을 가져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Seligman(1975)은 우울한 사람은 반복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통제 불능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기대감은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게 하며, 그 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사람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문제해결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이미정·안창일, 1997).

스트레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박경(2004)은 자살사고에 대해 청소년의 부정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유상미(2008)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기술과 능력을 가진 개인은 비효과적인 사회적 문제해결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대해 심리적 고통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완·이기영, 2004). 이러한 결과는 가족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써, 스트레스가 높으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스트레스가 높을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서윤정(2006)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문제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여 개인의 적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했으며, 이는 개인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사건을 재평가

하여 부적응 반응을 막아주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책을 발견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정애(1994)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사건들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대안적인 대처전략들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대처를 촉진시킨다고 보고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우울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Baker & Williams, 2001; Chang et al., 2000; Frye & Goodman, 2000), 사회적 지지의 경우, 정신건강의 문제에 관여되어 긍정적 작용을 하고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미혜, 2000; Dohrenwend & Dohrenwend, 1981; Chang et al., 2000; Dooley & Prause, 2002; Zupicich, 2003).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완충작용을 하고, 우울증과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소진 등에서 완충조절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ohen & Wills, 1985; Wheaton, 1985; Lin, 1986; Robinson et al., 1995; Zupicich, 2003, 엄태완 · 이기영, 2004).

한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자아탄력성에도 연관이 있다.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을 방지하고 대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Cicchetti & Toth, 2000),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Block & Keremen, 1996). 이를 바탕으로 권지은(2003)은 초·중·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서도 더 적극성을 띠며,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정서 및 행동문제를 연구한 김민정(2005)은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을 경우, 정서 및 행동문제에 있어 더욱 적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O'Connell-Higgins(1983)는 탄력적인 아동들이 삶의 어려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적인 접근성,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려는 능력, 유아 때부터 계속적으로 타인의

긍정적 관심을 얻어내는 능력이나 삶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이소영, 2007). 또한 송영경(2006)은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신뢰감을 주며, 대인관계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적응적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보호요인으로써,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중재·완화시켜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적 자원으로, 효율적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가족탄력성에 대입시켜볼 수 있는데, 가족탄력성이 높을 경우 문제 상황에 대하여 더욱 적응적이며,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성 및 융통성이 뛰어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또한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울성향,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문제해결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이라 함은 일상생활의 의미가 포함되는 것으로써, 개인적 차원만이 아닌 가족적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차원의 요인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는 개인적 차원의 것만으로 볼 수 없고 가족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친 활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지라도 사회적 지지를 통해 문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재정의 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된다는 점에서 가족탄력성의 개념과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가족탄력성과 그 개념이 유사한 것으로, 이러한 전제는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비단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스트레스, 가족탄력성 등의 가족적 차원도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등과 같은 요인들은 개인이 속한 가족 차원에서도 그 의미를 동일하게 갖는 것으로써,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나, 이 밖에도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각 변인들의 양상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

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는 김명자(1991)의 중년기 부부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남녀 모두가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자녀와의 갈등,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부부간의 불화나 성생활 불만, 부모나 기타 가족원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시가 식구와의 불화도 빈번하게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oss와 동료들(1985)은 부인이 남편보다 스트레스 사건을 더 많이 경험하며, 가족스트레스 인지수준 또한 부인이 남편보다 높다고 하였고, Olson과 동료들(1983), Dohrenwend(1973), 이평숙(1984) 등도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스트

레스 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Wise와 Murray(1987)는 중년남성의 경우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중년남성은 가족관계에서 안정감을 추구하며 자기탐색을 하려하고, 동시에 새로운 요구와 역할기대 때문에 불안정한 생활이 형성되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워져 결국 위기감과 불안이 고조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Jalowiec과 Powers(1981), Uhlenhuth(1974), 정민자(1983) 등은 성에 따라 스트레스 사건경험이나 가족스트레스 인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는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탄력성의 경우 구정화(2005)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탄력성 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반면, 김은지(2007), 윤수희(2004)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김화자(1998)는 정서반응 측면에서 남성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김경희(1998)와 이경란(2006)의 연구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연령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최은경(1993)에 의하면 50대 이후 부부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애순(1993) 역시 51-55세에 중년기 위기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김영규(1980)와 김명자(1989)는 중년기는 같을지라도 연령의 폭이 넓고 남성의 경우 은퇴시기가 다가올수록 스트레스와 위기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

트레스 수준은 연령의 증가로 인해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McCrece(1989)는 연령증가에 따른 스트레스나 위기감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가족탄력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의사소통 과정 영역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윤수희, 2004), 위탁아동에 대한 김은정(2008)의 연구에서는 위탁모의 연령은 40세를 정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탄력성이 낮아지고, 40세보다 낮아질수록 역시 가족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보애(2003)의 연구에서 학년이 높은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경희(1998)는 비행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연령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문제규정영역 점수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3)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남유리(1989)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비취업 주부들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스트레스 점수를 부여한다고 하였고, 배종열(1985)은 부인의 학력, 남편의 학력은 경제적 긴장과 역의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명자(1989)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적응방법이 많고 자원이 많아 스트레스나 위기감이 낮다. 그러나 Jalowiec과 Powers(1981)는 교육수준과 스트레스 수준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정민자(1983)와 전세경(1988) 역시 교육수준과 가족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가족탄력성의 경우 김미옥(2001)에 의하면 학력이 높을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김은지(2007) 역시 정신분열환자 가

족에 대한 연구에서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 점수가 높다고 하였다. 또한 치매노인 가족에 대한 김은영(2008)의 연구에서는 수발자가 대졸 이상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여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김경희(1998)는 비행청소년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 종교

종교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박혜순(1991)은 중년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종교가 없는 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정원길(2001) 역시 기혼여성의 스트레스 연구 결과 종교가 없는 집단이 스트레스가 더 높다고 하였다. 윤여정(2001) 또한 종교는 중년기 여성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여 전반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무교인 경우보다 가족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탄력성의 경우 구정화(2005)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 중에서도 특히 천주교의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임유미(2007)는 이혼여성 한부모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조직유형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조직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노인 부양가족에 대한 김은영(2008)의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본인 및 수발자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1998)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혼 상태

결혼 상태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이혼한 여성은 기존 부부간 유대를 지속시키거나 여전히 전배우자에게 아내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전배우자에 대한 애착 때문에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며(성정현, 2002), 사별한 여성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단절, 재정적 상실, 배우자를 향한 그리움, 부부역할체계에서 사별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체계로 변화하는 데 따른 어려움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Weiss, 1993). 또한 이혼집단의 경우 사별집단보다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사별집단의 경우 이혼집단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Gove & Shin, 1989).

가족탄력성의 경우 구정화(2005)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보다 사별의 경우 일 때 가족탄력성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자녀 수 및 자녀 연령

자녀 수 및 자녀 연령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김애순(1993)과 최은경(1993) 등은 중년기 위기감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중년기 위기감이 높아진다고 하였고, 최동숙(1989)에 의하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중년기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성장에 따른 세대차, 자녀에 대한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중년기 위기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연실(1996)은 청소년 자녀가 가족이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로 가족원수의 감소로 인해 부모-청소년 자녀 간 지나친 감정적 유대가 심리적 긴장으로 심화될 수 있고, 대학입시를 위한 공부 위주의 가정교육과 지나친 교육열을 감당하기 위한 막대한 심리·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물질적·사회적 혼란 속에서 생활한 부모세대와는 달리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자녀간 세대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신

혜섭, 2006). 이러한 점에서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부부의 우울수준은 매우 높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가족탄력성의 경우 위탁아동에 대한 김은정(2008)의 연구에서 위탁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김고은(2005)은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탄력성 점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나, 자녀연령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수준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었다.

(7) 직업

직업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특히 남성에게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신혜섭, 2006). 또한 Vaillant(1977)는 직업지위가 낮은 사람이 스트레스와 권태감이 높고, 전문직 집단은 위기감이 뚜렷이 낮았다고 하였다. 김명자(1989)의 연구에서도 한국 남성의 위기감과 스트레스를 가장 의미 있게 설명해주는 요인 중의 하나로 직업의 종류 및 직업지위를 들고 있으며, 최은향(1993)의 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장영자(2003)는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유무에 따라 가족스트레스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가족탄력성의 경우 구정화(2005)는 직업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가족탄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은지(2007)는 정신분열환자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환자의 직업이 주부인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놀랄 만한 가족의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고은(2005)은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 경우 가족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김경희(1998)는 비행청소년 아버지와 어머니

의 직업과 자녀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8) 소득

소득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Hock와 동료들(1980)은 자녀의 학교입학이 아버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아버지가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Dohrenwend(1973)와 Bernard(1976)도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불안정한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한편, 최연실(1996)에 의하면 청소년 자녀가 가족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 압력이 큰 시기로서, 경제적 안정감이 개인의 심리, 정서적 안녕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명자(1989)의 연구에서는 도시주부들이 인지하는 경제적 곤란수준과 중년기 위기감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정자 등(1996)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곤란이 매우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Uhlenhuth(1974)는 경제적 지위와 스트레스 수준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가족탄력성의 경우 Olsen과 그의 동료들(1999)의 연구에 의하면, 가계소득이 가족탄력성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미옥(2001)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가족의 월수입이 적을수록 낮은 가족탄력성 점수를 보인다고 하여 가계소득과 탄력성과의 관계를 시사하였다. 또한 김은지(2007), 김은영(2008), 윤수희(2004)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탄력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1998)의 연구에 의하면 생활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및 연구 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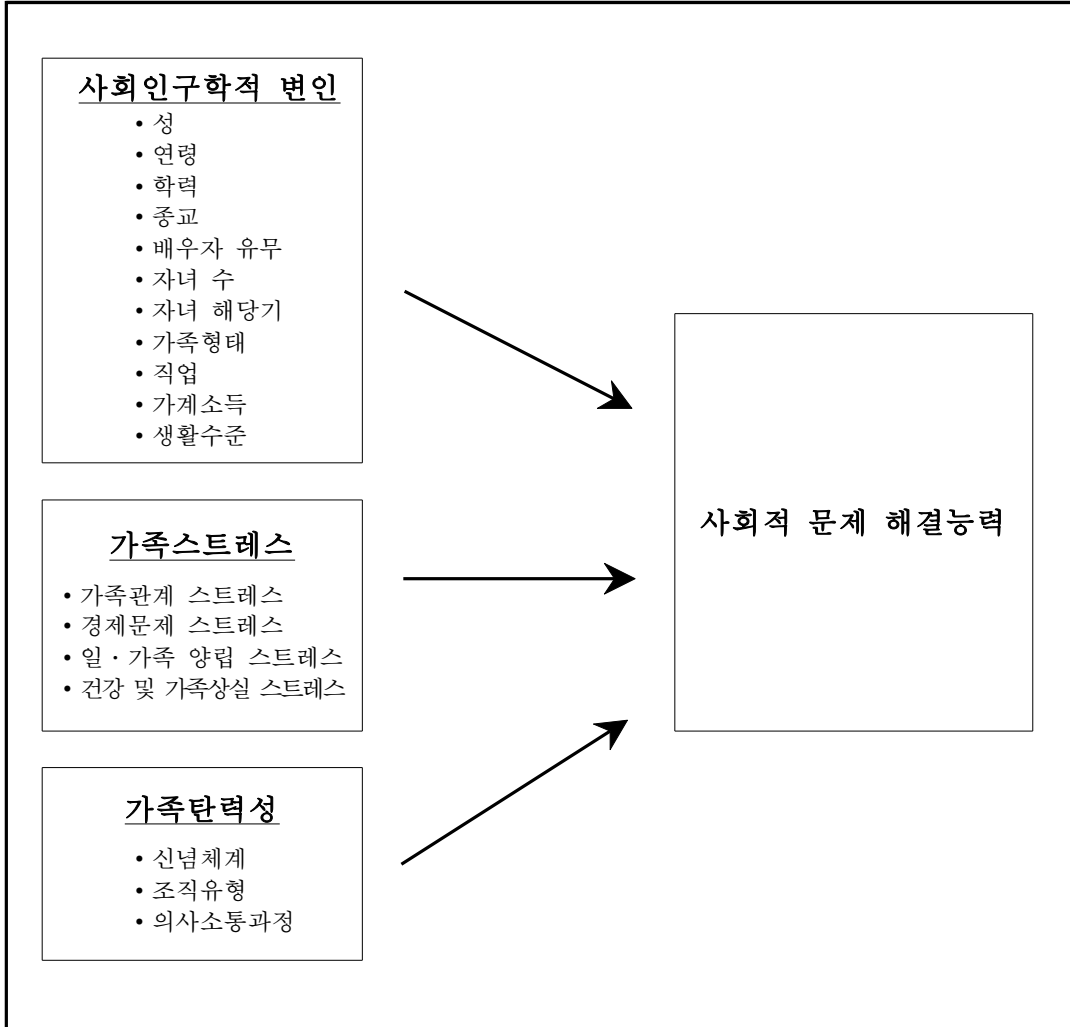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의 일반적
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있어
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배경변인과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그림 -2> 연구 모형

2. 용어의 정의

1) 중년기

중년기는 생활연령이나 가족생활주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관되지 않고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출현으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를 보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가족의 경우 그 특성상 중년기를 일컫는 '진수기'라는 용어가 적용되기 힘든 점 등, 가족생활주기로 구분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생활연령으로 구분하여 40~59세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는 중년기 가족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한다. 즉, 각 하위 요인을 가족관계, 경제문제, 일·가족 양립문제, 건강 및 가족상실감의 요인으로 구성하고 이들 각각의 가족요인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중년의 스트레스를 가족스트레스라 정의한다.

3) 가족탄력성

가족탄력성은 가족이 고위험 혹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적응·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한다.

(1) 신념체계

신념체계는 가족이 하나의 체계로서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통제감, 가족강점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2) 조직유형

조직유형은 가족의 위기와 역경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가족의 구조화로 정의하며 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자원 활용도의 하위요인을 포함한다.

(3) 의사소통과정

의사소통과정은 가족관계 내에서의 정보교환으로써 의사소통의 명확성, 개방된 감정표현,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로 구성된다.

4)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란 사회학습과정과 사회적 기술에 의한 실생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써,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황에 대처하는 인지·정서·행동적 과정과 이를 통해 문제의 효과적인 대안을 발견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문제해결지향과 문제해결기술로 나뉜다.

3. 측정 도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인 40~50대 중년기 남녀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들에서 파악하고 있는 배경들을 근거로 성, 연령, 교육수준, 종교, 배우자의 유무¹⁾, 자녀구성 및 자녀의 발달단계, 가족형태, 가족관계, 직업, 가계소득, 지각된 생활수준의 요인 등의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2) 가족 스트레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측정은 McCubbin 등(1982)이 개발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 and Changes)의 71문항 척도를 김안자(2005)가 선별한 18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김안자의 척도 문항은 가족관계 4문항, 경제문제 4문항, 직업 및 가족갈등 4문항, 대인관계 4문항, 건강 및 상실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좀 더 명확한 구분을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대인관계 요인을 가족관계에 포함시키고, '직업 및 가족갈등'의 설문문항의 특성을 다시금 고려하여 '일·가족 양립문제'로 재명명하였다. 또한 '건강

1) 설문지는 결혼 상태로 조사하였으나, 본문에서는 배우자 유무로 나누었음.

및 상실'이라는 하위요인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 및 가족상실'로 수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가족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은 가족관계 8문항, 경제문제 4문항, 일·가족 양립문제 4문항, 건강 및 가족상실감 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응답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하며, 측정결과 본 연구에서 가족스트레스의 신뢰도는 .84로 나타났다.

<표 -2> 가족 스트레스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척도의 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가족 스트레스	가족관계	8	.76	.84
	경제문제	4	.72	
	일·가족 양립문제	4	.68	
	건강 및 가족상실	2	.71	
계		18	-	

3) 가족탄력성

가족탄력성 척도는 선행연구 및 Walsh(1998)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김미옥(2001)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즉, 김미옥의 경우 장애아동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특성상 신념체계의 하위영역으로 가족통제감, 가족강점과 함께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를 삽입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선례로 남아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임유미, 2007) 장애아동에 대한 태도 대신 이혼에 대한 태도를 넣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념체계를 가족통제감, 가족강점,

태도로 보는 경향이 생겨났다. 여기서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은 각각 Walsh의 역경에 대한 의미부여 능력과 긍정적 시각에 대응되지만, 태도의 경우는 Walsh의 본래 이론의 의도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념체계를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조직유형은 선행연구(김미옥, 2001; 임유미, 2007)에서 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자원으로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Walsh의 정의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가족자원을 '가족자원 활용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의사소통과정은 의사소통의 명확화, 개방된 감정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로, 선행연구들과 함께 구성하였다.

(1) 신념체계

신념체계는 가족통제감, 가족강점의 두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① 가족통제감

가족통제감은 가족구성원이 가족의 위기나 역경에 대한 이해 및 의미부여하는 방식이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Antonovsky & Sourani(1988)가 개발한 가족통제감 척도(FSOC)는 이해력, 처리력, 의미성의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해력은 가족의 내적, 외적 환경이 구조화되고 예측 가능하며 해명 가능한지에 관련되는 질문들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리력은 가족이 환경 요구 충족에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련되는 질문들로,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의미성은 가족에게 부과되는 요구들이 도전할만하고 가족들이 자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관련되는 질문들로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통제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중 1, 4, 5, 6, 9, 11, 15, 16, 17, 18번은 역산하였으며, 신뢰도는 .78로 나타났다.

② 가족강점

가족강점은 가족에 대한 성실성, 신뢰감, 자부심, 그리고 가족구성원이 문제를 다루거나 함께 지내는 능력에 대한 일치성 등으로 정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Olson이 개발한 가족강점(Family Strengths)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가족프라이드와 가족일치성으로 구성되는데, 가족프라이드는 7문항으로 가족 성원간의 성실성과 긍정적 사고방식, 가족에 대한 신뢰감 등으로 구성되었고, 가족일치성은 5문항으로 일을 수행하는 가족의 능력, 문제를 다루는 능력, 함께 지내는 능력으로 구성하여 가족강점 문항은 총 12문항이다. 신뢰도는 .76이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강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중 2, 4, 6, 7, 11번 문항은 역산하였다.

(2) 조직유형

조직유형은 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자원 활용도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① 역할안정성

역할안정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수행하는 역할 분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척도는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수행하는 특수한 행동들이 잘 분담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

으로, Epstei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가족기능평가(Family Assessment Device, FAD)에서 안정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역할 차원의 요인 5문항을 사용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도는 .71로 나타났으며, 5문항 모두 역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역할안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② 가족응집력

가족응집력은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원 상호간에 지니는 정서적 유대감과 가족원 개인이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 내의 다른 체계 또는 가족원간의 친밀감이나 일체감, 유대감을 느끼는 정도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Olson과 그의 동료들(1985)에 의해 개발된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척도Ⅲ(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 III, FACES-III) 중 응집성 항목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력이 높음을 의미하고, 신뢰도는 .86이었다.

③ 가족자원 활용도

가족자원 활용도는 가족이 가진 사회경제적 자원에 대한 활용도로써, 가족 내 위기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 사회적 관계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McCubbin, Comeau, & Harkins에 의해 만들어진 FIRM(The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를 김미옥(2001)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자원 활용이 많음을 의미한다. 문항 중 9, 10, 11, 12번은 역산하였으며, 신뢰도는 .76이었다.

(3) 의사소통과정

의사소통과정은 Epstei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가족기능평가 (Family Assessment Device, FAD)에서 김미옥(2001)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를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과정이 원활함을 뜻한다. 의사소통의 명확화, 개방된 감정표현,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전체 신뢰도는 .75였다. 문항 중 5, 6, 7, 8번은 역산하였다.

① 의사소통의 명확화

의사소통의 명확화는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73이었다.

② 개방된 감정표현

개방적인 감정표현은 가족구성원 상호간에 서로의 감정을 얼마나 개방적으로 표현하는가의 정도로, 총 4문항이며 신뢰도는 .69로 나타났다.

③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상호협력적인 문제해결은 가족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 간에 협력적으로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가며 해결해 나가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총 3문항이며 신뢰도는 .75였다.

< 표 - 3 > 가족탄력성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척도의 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94
가족탄력성	<u>신념체계</u>	30	.86	
	가족통제감	18	.78	
	가족강점	12	.76	
	<u>조직유형</u>	35	.87	
	역할안정성	5	.71	
	가족응집력	10	.87	
	가족자원 활용도	20	.76	
	<u>의사소통</u>	11	.75	
	의사소통의 명확화	4	.73	
	개방된 감정표현	4	.69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3	.75		
계	75	-		

4)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Zurilla와 Nezu(1990)가 개발한 SPSI(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척도는 여러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척도가 존재한다. 이 중 성인을 조사대상으로 제작된 척도 중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Heppner와 Peterson(1982)이 개발한 PSI(Personal Problem Solving Inventory)와 D'Zurilla와 Nezu(1990)가 개발한 SPSI(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이다. Heppner와 Peterson(1982)의 PSI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개인의 행위와 태도를 측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해 D'Zurilla와 Nezu(1990)의 SPSI는 문제해결에 대한 지향과 실제적 기술을 측정하여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를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

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을 보고자 하므로 D'Zurilla & Nezu(1990)의 SPSI를 사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하위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문제해결지향(Problem Orientation)

문제 해결지향은 한 개인이 문제 상황에 처음 직면했을 때 보이게 되는 즉각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들을 포함한다.

a. 인지반응

: 문제발생 시 문제를 인식하려는 주의 깊은 자세와 일반적이고 안정된 귀인, 평가, 기대 등을 말한다.

b. 정서반응

: 문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정서 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상태(들뜬 기분, 열망, 희망 등)와 부정적 상태(불안, 우울 등)를 포함한다.

c. 행동반응

: 문제 상황에 직면 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려는 경향성이거나 문제해결을 지연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는 등 회피하는 경향성에 초점을 맞춘다.

② 문제해결기술(Problem Solving Skill)

문제 해결기술은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생각되는 기술로 정의한다.

a. 문제규정과 구성화

: 문제와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를 얻어 문제를 세분화시키고, 상황을 재평가하며, 해결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b. 대안적 해결책 산출

: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가능한 많이 생각해내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c. 의사결정

: 여러 대안들 중 가장 좋은 해결책을 비교분석하여 최상의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d. 해결책 수행과 확인

: 해결책을 실제로 수행한 뒤, 그 결과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기존의 SPSI는 총 70문항으로 2개의 주요척도와 7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하위척도는 10문항씩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소라(1998)가 요인분석을 통해 각 하위척도에서 상관관계가 낮은 3문항씩을 제외하고 총 49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문장을 재구성하고, 문제해결지향 척도와 문제해결기술 척도를 나누어 구성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신뢰도 및 하위영역별 신뢰도, 역산 문항은 < 표 - 4 >에 제시하였다.

< 표 - 4 >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의 구성 및 신뢰도

척도의 구성		문항 수		Cronbach's α			문항번호*
문제해결 지향	인지반응	7	21	.70	.91	.91	1*, 4*, 5, 7*, 12, 18, 20*
	정서반응	7		.85			3*, 6*, 15*, 16*, 17*, 19*, 21*
	행동반응	7		.79			2*, 8*, 9*, 10, 11*, 13*, 14*
문제해결 기술	문제규정과 구성화	7	28	.83	.92	.91	4, 6, 13, 14, 15, 21, 26
	대안적 해결책	7		.80			3, 8*, 9, 11, 18, 24, 25
	의사결정	7		.77			1*, 2*, 16*, 19, 22*, 23, 28*
	해결책 실행과 확인	7		.66			5*, 7*, 10, 12, 17, 20, 27*
계		49		-			-

비고: * 표시된 문항은 역산문항임.

4.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를 40~59세로 정의한 바, 40~59세의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에 응답자가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세한 설문지의 구성은 <부록 - 2>에 제시하였다.

연구의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9년 1월 19~23일까지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40~59세의 중년기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 조사대상자 표집방법은 유의추출법을 사용하였는데, 조사를 위해서는 전체 모집단에 대한 설문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추출하는 유의추출법을 사용하여 대표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에 적절하지 않거나 신뢰도, 타당도가 인정되지 않는 문항은 관련 전공분야 전문가의 평가와 조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에 반영 되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실시는 2009년 2월 9~25일까지 유의 추출법에 의한 표집방법으로 최종 수집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교육 받은 조사원과 함께 본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부의 경우 컴퓨터 파일로 전송하고 회신하는 형태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320부가 배부되었고 그 중 318부가 회수되었다. 응답문항이 부실 기재 되거나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설문지의 응답은 모두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최종 자료로 분석된 설문지는 총 298부이다.

5.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의 각 연구문제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문제 1>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평균, 표준편차 등을 각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 2> 배경변인에 따라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또는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 방법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 문제 3> 배경변인과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에서 실시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성,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 유무, 자녀 수, 자녀 해당기, 가족형태, 직업, 가계소득, 생활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녀 해당기는 자녀의 발달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성인은 정확한 구분을 위해 대학생, 미혼성인, 기혼성인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5>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성별은 총 298명의 응답자 중 남자가 105명으로 전체 35.2%, 여자가 193명으로 전체 64.8%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40대가 182명(61.1%), 50대가 116명(38.9%)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N=146, 49.2%), 대졸(N=111, 37.4%), 중졸 이하(N=27, 9.1%), 대학원 이상(N=13, 4.4%) 순으로, 고졸과 대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N=102, 34.3%), 기독교(N=78, 26.3%), 불교(N=69, 23.2%), 천주교(N=37,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결혼 상태는 대부분이 기혼 상태로서 유배우자가 전체 94.3%를 차지하였다. 자녀수는 평균 1.97명(.91남 1.06녀)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N=133, 44.9%), 대학생(N=89, 30.1%), 미혼성인(N=35, 11.8%), 학동기(N=22, 7.4%), 기혼성인(N=12, 4.1%), 유아기(N=3, 1.0%)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가 248명, 84.9%로 가장 많았으며, 3세대가 22명(4.5%), 부부가구가 20명(6.8%), 독신이 2명(.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상업 서비스(N=84, 29.3%), 전업주부(N=64, 21.5%), 일반사무직(N=54, 18.2%), 전문직(N=32, 10.8%), 관리직(N=25, 8.4%), 생산·단순노무직(N=20, 6.7%), 기타(N=12, 4.0%), 무직(N=3,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은 301~500만원이 32.7%, 201~300

만원 26.9%, 500만원 이상 20.7%, 200만원 이하가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중'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229명으로 78.2%, '하'라고 생각하는 경우 53명, 18.1%, '상'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11명, 3.8%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생활수준이 '중' 또는 '하'라 생각하고 있었다.

< 표 - 5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단위: N, %)

변인	분류	N	%	변인	분류	N	%
성	남자	105	35.2	가족 형태	3세대	22	4.5
	여자	193	64.8		2세대	248	84.9
연령	40~49	182	61.1		부부가구	20	6.8
	50~59	116	38.9		독신	2	.7
학력	중등졸업 이하	27	9.1	직업	무직	3	1.0
	고졸	146	49.2		전업주부	64	21.5
	대학졸업	111	37.4		상업(자영업 등)	87	29.3
	대학원 이상	13	4.4		일반사무직	54	18.2
종교	무교	102	34.3		관리직	25	8.4
	기독교	78	26.3		생산·단순노무직	20	6.7
	천주교	37	12.5		전문직	32	10.8
	불교	69	23.2		기타	12	4.0
	기타	11	3.7				
배우자	유	279	94.3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12
	무	17	5.9	101-200만원		45	15.3
자녀 수	남	0.91*	-	201-300만원		79	26.9
	여	1.97*	-	301-500만원		96	32.7
		1.06*	-	500만원 이상		61	20.7
자녀 해당기	유아기	3	1.0	생활 수준	상 중 하	11	3.8
	학동기	22	7.4				
	청소년기	133	44.9				
	대학생	89	30.1				
	미혼성인	35	11.8				
	기혼성인	12	4.1				
합 계		298	100	합 계		298	100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는 평균을 말함.

2.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일반적 경향

<연구문제 1>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일반적 경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가족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평균은 2.71($SD=.574$)로 중간값인 2.50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가족양립문제요인 3.64($SD=.663$), 경제문제요인 2.88($SD=.854$), 가족관계요인이 평균 2.67($SD=.666$), 건강 및 가족상실 2.30($SD=.932$) 순으로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문제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과 가족을 동시에 책임지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과,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이 중년기에게 당면한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중년기에는 가족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되면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가족갈등이나 가족관계 측면의 스트레스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김명자, 1991; 이평숙, 1984; 최동숙, 1989; 최연실, 1996; Boss, 198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가족탄력성을 살펴보면, 신념체계는 평균 3.46($SD=.422$)로, 하위요인인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은 각각 3.44($SD=.455$), 3.47($SD=.475$)이었으며, 중간값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사대상자의 신념체계가 비교적 굳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조직유형은 전체 3.32($SD=.40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역할안정성이 3.37($SD=.644$), 가족응집력 3.47($SD=.612$), 가족자원 활용도 3.23($SD=.424$)로 나타나 조직유형 또한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정은 전체 3.44($SD=.462$)로, 하위요인 별로 보면 의사소통의 명확성 3.43($SD=.618$), 개방적 감정표현 3.44($SD=.644$),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3.45($SD=.694$)점으로 나타나

의사소통과정 역시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문제해결지향 척도가 3.41($SD=.569$), 문제해결기술 척도가 3.72($SD=.503$)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과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아 나가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척도별 하위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해결지향 척도에서 인지반응은 3.33($SD=.566$), 정서반응 3.38($SD=.697$), 행동반응 3.52($SD=.630$)로 나타났으며, 문제해결기술 척도에서는 문제규정과 구성화가 3.56($SD=.564$), 대안적 해결책 산출 3.53($SD=.565$), 의사결정 3.46($SD=.599$), 해결책 수행과 확인이 3.34($SD=.492$)로 나타나 문제해결지향이나 문제해결기술이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6 > 조사 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일반적 경향**

(N=298)

변인		최소값 (Min)	최대값 (Max)	평균 (M)	표준편차 (SD)
가족 스트레스	<u>가족 스트레스</u>	1.28	4.33	2.71	.574
	가족관계	1.00	5.00	2.67	.666
	경제문제	1.00	5.00	2.88	.854
	일·가족 양립문제	1.00	5.00	3.64	.663
	건강 및 가족상실	1.00	5.00	2.30	.932
가족 탄력성	<u>신념체계</u>	2.67	4.83	3.45	.422
	가족통제감	2.06	4.72	3.44	.455
	가족강점	2.17	5.00	3.48	.475
	<u>조직유형</u>	1.69	4.74	3.32	.405
	역할안정성	1.20	5.00	3.37	.644
	가족응집력	1.40	5.00	3.47	.612
	가족자원 활용도	1.70	5.30	3.23	.424
	<u>의사소통과정</u>	2.27	5.00	3.44	.462
	의사소통 명확성	1.50	5.00	3.43	.618
	개방적 감정표현	1.75	5.00	3.44	.644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1.00	5.00	3.45	.694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u>문제해결지향</u>	1.33	5.00	3.41	.569
	인지반응	1.29	5.00	3.33	.566
	정서반응	1.00	5.00	3.38	.697
	행동반응	1.14	5.00	3.52	.630
	<u>문제해결기술</u>	2.14	5.00	3.72	.503
	문제규정과 구성화	2.00	5.00	3.56	.564
	대안적해결책 산출	1.14	5.00	3.53	.565
	의사결정	1.86	4.86	3.46	.599
해결책수행과 확인	1.86	4.86	3.34	.492	

3.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간의 집단간 차이

<연구문제 2>인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가족구조적인 측면 뿐 아니라 상호작용의 측면을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를 포함시켜 살펴보았다.

1)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차이 검증

조사대상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각 하위 영역별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종합적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관계 스트레스에서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부부관계에 '보통' 혹은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만족'한다 응답한 집단보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았고($p<.001$),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이 '불만족'이라 응답한 집단보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한편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자신의 생활수준이 '중'이나 '하'이라 생각하는 집단이 '상'이라 생각하는 집단보다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경제문제 스트레스의 경우는 직업과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관리직, 생산·단순노무직, 전문직 집단이 전업주부나 상업, 일반사무직 집단보다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생활수준이 '중' 또는 '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경제문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에서는 배우자 유무, 가족형태,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유배우자 집단이 무배우자 집단보다($p < .05$), 부부가구 집단이 2·3세대 가구집단보다($p < .001$),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럽거나 '보통'인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p < .001$)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건강 및 가족상실 스트레스에서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부부관계가 '보통' 혹은 '불만족'이라 생각하고($p < .01$) 부모-자녀관계가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집단($p < .001$)이 가족원의 건강이나 상실에 대한 염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족스트레스는 크게 세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배우자 유무나 가족형태와 같은 가족 구조적 요인, 둘째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와 같은 가족 관계의 질, 셋째는 직업 및 생활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가족스트레스는 가족구조 및 상호작용, 사회·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가족관계, 가족재정, 직업관계, 건강, 상실의 모든 스트레스 하위영역에서 스트레스 사건이 더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수반되는 스트레스 인지수준도 높다는 강인(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는 사회계층과 역의 관계가 있다고 한 Dohrenwend(1973)와 Bernard(1976)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는 낮은 사회계층에 위치하고 있을수록 정신건강성이 낮고 자원이 결핍하여 중년기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김명자, 1989; Cox, 1980)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차이

(N=298)

변인	분류	가족관계			경제문제			일·가족 양립문제			건강 및 가족상실		
		M	SD	D	M	SD	D	M	SD	D	M	SD	D
배우자	유	2.57	.644		2.86	.843		2.71	.745		2.29	.917	
	무	2.71	.825		3.07	.707		2.60	.842		3.15	.827	
	t값	-.852			-.989			.112*			-1.854		
가족 형태	3세대	2.36	.666		3.05	.789		2.24	.552	A	2.70	.730	
	2세대	2.61	.621		2.87	.834		2.61	.737	A	2.58	.878	
	부부가구	2.70	.640		2.88	.854		3.19	.812	B	2.86	.902	
	F값	1.655			.644			6.140***			.600		
부부 관계 만족도	만족	2.47	.657	A	2.80	.843		2.51	.763		2.19	.886	A
	보통	2.71	.639	B	2.96	.879		2.70	.727		2.37	.923	B
	불만족	2.84	.747	B	3.05	.732		2.82	.812		2.62	1.14	B
	F값	6.441***			1.792			2.408			5.090**		
자녀 관계 만족도	만족	2.93	.765	A	2.81	.870		3.04	.702	A	2.14	.848	A
	보통	2.86	.605	A	3.06	.822		2.89	.716	A	2.56	.998	A
	불만족	2.47	.638	B	3.04	.675		2.46	.747	B	2.91	1.06	B
	F값	12.307***			2.593			9.437***			6.171***		
직업	전업주부	2.47	.626		2.59	.846	A	1.95	.941		1.60	1.12	
	상업서비스	2.63	.687		2.96	.826	A	2.66	.709		2.37	.915	
	일반사무직	2.52	.664		2.78	.896	A	2.54	.787		2.26	.904	
	관리직	2.68	.639		3.03	.870	B	2.62	.783		2.44	.812	
	생산 단순노무직	2.93	.692		3.18	.799	B	2.68	.651		2.34	.850	
	전문직	2.54	.592		3.07	.786	B	2.69	.725		2.38	.968	
	F값	1.808			2.810**			1.803			.726		
생활 수준	상	2.11	.734	A	2.35	.929	A	2.35	.891		2.45	1.09	
	중	2.55	.648	B	2.79	.808	B	2.56	.779		2.28	.969	
	하	2.89	.627	B	3.38	.834	B	2.83	.641		2.30	.774	
	F값	9.054***			13.509***			2.691			1.560		

* $p < .05$ ** $p < .01$ *** $p <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실시 후 동일 문자 표기는 공통집단을 뜻함.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차이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다양한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하위요인별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첫 번째 요인인 신념체계를 살펴보면, 가족통제감의 경우 학력, 배우자 유무, 가족형태, 부부관계 및 자녀관계 만족도,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력에 따라서는 중졸이하인 집단보다 고졸 이상 집단의 가족통제감이 높았는데($p < .05$), 이는 학력이 높은 집단의 가족통제감이 높은 것으로, 김미옥(2001), 김은지(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자 집단이 무배우자 집단보다 가족통제감이 높았고($p < .01$),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2·3세대 집단이 부부가구집단보다 가족통제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한편 부부관계가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과($p < .001$)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이라 응답한 집단($p < .001$)의 가족통제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가계소득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으로 높은 집단의 가족통제감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결국 학력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다세대 가구이면서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에 만족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통제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강점의 경우 배우자 유무,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유배우자 집단($p < .05$), 부부관계에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p < .001$), 부모-자녀관계에 '만족'하는 집단($p < .001$)의 가족강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집단의 가족강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배우자가 있고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우며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강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배우자가 있고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만족하며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통제감과 가족강점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어은주, 1996; Ammons & Stinnett, 1980; Lewis, 1976; Mace & Mace, 1985),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족통제감이 높다는(김미옥, 2001)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 8>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차이 - 신념체계

(N=298)

변인	분류	가족통제감			가족강점		
		M	SD	D	M	SD	D
학력	중졸이하	3.23	.351	A	3.44	.342	
	고졸	3.41	.468	B	3.46	.445	
	대졸	3.52	.450	B	3.52	.526	
	대학원이상	3.50	.464	B	3.37	.508	
	F값	2.754*			.964		
배우자	유	3.45	.455		3.49	.477	
	무	3.17	.346		3.27	.397	
	t값	2.370**			1.853*		
가족 형태	3세대	3.55	.358	A	3.59	.398	
	2세대	3.46	.452	A	3.48	.483	
	부부가구	3.14	.500	B	3.31	.431	
	F값	2.285***			864		
부부관계 만족도	만족	3.59	.416	A	3.40	.455	A
	보통	3.28	.461	A	3.36	.456	A
	불만족	3.07	.304	B	3.07	.339	B
	F값	26.880***			20.647***		
자녀관계 만족도	만족	3.57	.433	A	3.58	.477	A
	보통	3.13	.369	B	3.26	.370	B
	불만족	3.20	.381	B	3.18	.392	B
	F값	30.189***			17.127***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3.09	.428	B	3.13	.454	B
	101-300만원	3.39	.440	A	3.48	.488	A
	301만원 이상	3.51	.441	A	3.49	.464	A
	F값	6.435**			3.362*		

* $p < .05$ ** $p < .01$ *** $p <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실시 후 동일 문자 표기는 공통집단을 뜻함.

가족탄력성의 두 번째 하위요인인 조직유형은 다시 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자원 활용도의 세 요인으로 나뉘는데,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을 < 표 - 9 >에 제시하였다.

첫째, 역할안정성의 경우 성별, 배우자 유무,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역할안정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자 집단이 무배우자 집단보다 역할안정성 점수가 높았으며($p < .01$), 부부관계에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p < .001$)과 부모-자녀관계에 '만족'이라 응답한 집단($p < .001$)의 역할안정성이 더 높게 보고되었다. 결국 남자이면서 배우자가 있고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역할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응집력의 경우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부부관계($p < .001$)와 부모-자녀관계($p < .001$)에 '만족'하는 집단이 가족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자원 활용도의 경우 종교, 가족형태,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직업, 가계소득,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의 경우 종교가 없는 집단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보다 가족자원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p < .01$) 이는 종교가 하나의 자원으로서 역할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임유미(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2·3세대 집단이 부부가구보다 가족자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p < .05$). 한편 부부관계($p < .001$) 및 부모-자녀관계($p < .001$)에 '만족'하는 집단의 가족자원 활용도가 높았으며, 생산·단순노무직 집단보다 나머지 직업집단의 경우($p < .01$)와 가계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집단($p < .01$), 생활수준이 '상' 또는 '중'이라 생각하는 집단($p < .001$)의 가족자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세대이고, 가족관계가 원만하며, 생산·단순노무직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계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자원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조직유형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가족관계의 질이 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자원 활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할 수 있다.

<표 -9>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차이 - 조직유형

(N=298)

변인	분류	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자원		
		M	SD	D	M	SD	D	M	SD	D
성	남자	3.47	.622		3.42	.596		3.21	.468	
	여자	3.32	.651		3.50	.620		3.25	.398	
	t값	1.918*			-1.047			-.783		
종교	무교	3.29	.608		3.49	.553		3.13	.357	B
	기독교	3.47	.588		3.47	.643		3.37	.435	A
	천주교	3.28	.672		3.45	.693		3.19	.432	B
	불교	3.40	.751		3.43	.639		3.25	.472	B
	기타	3.51	.493		3.63	.535		3.21	.371	B
	F값	1.174			.281			3.384**		
배우자	유	3.40	.634		3.48	.614		3.25	.428	
	무	3.00	.648		3.36	.570		3.05	.300	
	t값	2.503**			.742			1.771		
가족 형태	3세대	3.47	.526		3.69	.574		3.43	.393	A
	2세대	3.37	.634		3.48	.602		3.23	.419	A
	부부가구	3.25	.763		3.69	.625		3.14	.429	B
	F값	.707			2.508			2.804*		
부부관계 만족도	만족	3.53	.643	A	3.55	.620	A	3.31	.427	A
	보통	3.24	.570	A	3.46	.555	B	3.17	.373	B
	불만족	2.97	.504	B	3.07	.479	B	3.01	.414	B
	F값	14.064***			8.285***			8.555***		

자녀관계 만족도	만족	3.78	.662	A	3.56	.609	A	3.32	.408	A
	보통	3.08	.457	B	3.32	.532	B	3.04	.362	B
	불만족	3.18	.673	B	3.24	.420	B	3.08	.411	B
F값		11.525***			6.635***			13.621***		
직업	전업주부	3.47	.678		3.44	.661		3.26	.470	A
	상업(자영업 등)	3.43	.497		3.49	.555		3.27	.418	A
	일반사무직	3.37	.677		3.54	.603		3.21	.409	A
	관리직	3.21	.799		3.39	.566		3.22	.391	A
	생산, 단순노무직	3.15	.665		3.30	.613		2.89	.363	B
	전문직	3.30	.575		3.48	.616		3.29	.372	A
	F값		1.368			.592			3.088**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3.07	.616		3.15	.867		2.98	.480	B
	101-300만원	3.38	.653		3.47	.619		3.18	.402	B
	300만원 이상	3.39	.637		3.49	.588		3.29	.428	A
	F값		1.450			1.705			4.495**	
생활수준	상	3.44	.933		3.23	.893		3.33	.557	A
	중	3.40	.629		3.49	.589		3.28	.411	A
	하	3.20	.627		3.43	.605		3.03	.382	B
	F값		2.114			1.172			7.791***	

* $p < .05$ ** $p < .01$ *** $p <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실시 후 동일 문자 표기는 공통집단을 뜻함.

마지막으로 가족탄력성의 세 가지 요인 중 마지막 요인인 의사소통 과정의 차이를 배경변인에 따라 살펴본 결과를 < 표 - 10 >에 제시하였다.

첫째, 의사소통의 명확화에서는 부부관계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부부관계에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이 '불만족' 집단보다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p < .05$).

둘째, 개방적 감정표현에서는 연령, 배우자 유무,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집단이 50대 집단보다 감정을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p < .05$), 이것은 40대와 50대도 시대

적 상황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가족원 간에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좀 더 개방된 시대를 거친 40대의 경우가 개방적인 감정표현에 더 익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배우자의 경우 개방적 감정표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5$), 이는 부부가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의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원 간에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감정표현 측면에서의 개방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p < .001$)에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과 부모-자녀관계($p < .001$)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집단이 더 개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 결국 연령대가 낮고 배우자가 있으며 가족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개방적인 감정표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의 경우 학력,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력의 경우 대학원 이상보다 대졸 이하 집단의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p < .01$), 이것은 김미옥(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또한 부부관계에 '만족' 혹은 '보통'인 집단($p < .001$)과 부모-자녀관계에 '만족'하는 집단($p < .001$)의 경우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보다 '중'이나 '하'인 집단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p < .05$), 대졸 이하이면서 가족관계가 만족스럽고 생활수준이 중 또는 하라 생각하는 집단의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의사소통 과정 영역에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매우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나 가족관계의 질이나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의사소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 특히 부부관계 만족도의 경우 의사소통과정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부부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의사소통을 명료하고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개방적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력하여 갈등을 다루어 나가는 능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 표 -10 >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탄력성의 차이 - 의사소통 과정

(N=298)

변인	분류	의사소통의 명확화			개방적 감정표현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M	SD	D	M	SD	D	M	SD	D
연령	40-49세	3.42	.60		3.34	.605		3.50	.660	
	50-59세	3.45	.64		3.52	.665		3.41	.720	
	t값		-.449			-2.330*			1.041	
학력	중졸이하	3.53	.606		3.29	.581		3.45	.711	A
	고졸	3.39	.576		3.40	.609		3.48	.679	A
	대졸	3.49	.647		3.53	.710		3.49	.659	A
	대학원이상	3.42	.793		3.52	.515		3.31	.897	B
	F값		.817			1.084			3.525**	
배우자	유	3.45	.617		3.46	.647		3.47	.702	
	무	3.25	.667		3.15	.538		3.25	.534	
	t값		1.261			1.944*			1.218	
부부관계 만족도	만족	3.50	.598	A	3.57	.668	A	3.57	.641	A
	보통	3.43	.652	A	3.35	.535	A	3.40	.767	A
	불만족	3.19	.611	B	3.03	.543	B	3.02	.553	B
	F값		3.158*			11.292***			9.184***	
자녀관계 만족도	만족	3.79	.611		3.55	.649	A	3.56	.671	A
	보통	3.35	.622		3.14	.471	B	3.23	.718	B
	불만족	3.32	.531		3.25	.686	B	3.29	.486	B
	F값		1.736			12.573***			6.820***	
생활수준	상	3.43	.969		3.18	.717		2.94	.968	B
	중	3.42	.624		3.46	.661		3.48	.659	A
	하	3.50	.472		3.39	.554		3.43	.642	A
	F값		.327			1.130			3.341*	

* $p < .05$ ** $p < .01$ *** $p <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실시 후 동일 문자 표기는 공통집단을 뜻함.

3)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검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중심으로 < 표 - 11 >와 < 표 - 12 >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두 가지 요인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제해결지향

배경변인에 따른 문제해결지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반응의 경우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및 가족형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직업, 가계소득, 생활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인지반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p<.001$), 학력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인 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유배우자($p<.01$)이며 2·3세대 가구 집단의 경우($p<.001$), 부부관계($p<.001$) 및 부모-자녀관계($p<.001$)에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의 경우 인지반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생산·단순노무직 이외의 직업집단($p<.05$)과 가계소득이 101만원 이상으로 높은 집단($p<.001$), 생활수준이 '상' 또는 '중'이라 응답한 집단($p<.01$)의 인지반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국 남자이면서 대졸 이상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다세대 가구이고 가족관계가 만족스러우며, 생산·단순노무직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계소득이 월 101만원 이상에 생활수준은 중간이나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지반응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서반응의 경우 성별, 배우자 유무, 가족형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가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정서반응 점수가 높았고($p<.001$), 유배우자 집단과($p<.001$)

2·3세대가구 집단($p<.01$)의 정서반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관계($p<.01$) 및 부모-자녀관계($p<.05$)가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과 가계소득이 101만원 이상으로 높은 집단($p<.001$)의 정서반응 점수가 높게 나타나 결국 남자이면서 배우자가 있고 다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에 대체로 만족하고 가계소득이 월 101만원 이상인 경우 정서반응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행동반응의 경우 성별, 배우자 유무, 가족형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가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p<.05$),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자 집단($p<.05$),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3세대가구 집단($p<.05$)의 행동반응 점수가 높았으며, 부부관계($p<.001$)에 '만족' 혹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과 부모-자녀관계($p<.001$)가 '만족'이라 응답한 집단, 가계소득이 월 101만원 이상인 집단($p<.001$)의 행동반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남자이면서 배우자가 있고 3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에 대체로 만족하고 가계소득이 월 101만원 이상인 경우 행동반응 점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성별, 배우자 유무와 가족형태, 가족관계 만족도, 가계소득이 문제해결지향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배우자 유무의 경우는 엄태완과 이기영(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으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문제 인식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반응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행동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문제해결지향에는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 상태나 가족형태와 같은 가족구조,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의 만족도의 가족관계적 요인과, 성별이나 학력, 가계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서 상당한 유의도를 보임에 따라 이러한 변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11 >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 문제해결지향

(N=298)

변인	분류	문제해결지향								
		인지반응			정서반응			행동반응		
		M	SD	D	M	SD	D	M	SD	D
성	남자	3.49	.603		3.60	.679		3.60	.628	
	여자	3.25	.528		3.26	.678		3.48	.628	
	t값	3.397***			4.121***			1.677*		
학력	중졸이하	3.20	.541	A	3.29	.620		3.46	.384	
	고졸	3.22	.498	A	3.31	.695		3.49	.643	
	대졸	3.49	.598	B	3.50	.703		3.61	.627	
	대학원이상	3.52	.686	B	3.46	.707		3.41	.712	
	F값	4.399**			1.683			1.174		
배우자	유	3.36	.558		3.42	.680		3.55	.629	
	무	3.03	.390		2.97	.642		3.19	.388	
	t값	2.385**			2.650***			2.284*		
가족형태	3세대	3.61	.526	A	3.51	.628	A	3.75	.529	A
	2세대	3.34	.552	A	3.41	.695	A	3.53	.635	B
	부부가구	2.95	.653	B	2.99	.724	B	3.27	.649	B
	F값	8.015***			4.079**			3.184*		
부부관계 만족도	만족	3.42	.577	A	3.48	.678	A	3.64	.601	A
	보통	3.30	.489	A	3.31	.644	A	3.43	.647	A
	불만족	3.04	.598	B	3.09	.780	B	3.17	.575	B
	F값	6.406***			5.130**			9.200***		
자녀관계 만족도	만족	3.40	.567	A	3.44	.691	A	3.64	.612	A
	보통	3.20	.494	A	3.28	.667	A	3.27	.595	B
	불만족	3.12	.708	B	3.09	.799	B	3.23	.646	B
	F값	4.952**			3.494*			11.400***		
직업	전업주부	3.24	.527	A	3.26	.725		3.48	.665	
	상업(자영업 등)	3.41	.558	A	3.50	.640		3.59	.647	
	일반사무직	3.42	.551	A	3.47	.709		3.54	.611	
	관리직	3.34	.565	A	3.30	.720		3.49	.586	
	생산, 단순노무직	2.99	.587	B	3.24	.875		3.42	.614	
	전문직	3.38	.597	A	3.33	.567		3.41	.532	
	F값	2.518*			1.353			.599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2.68	.609	B	2.76	.956	B	2.93	.757	B
	101-300만원	3.29	.499	A	3.33	.642	A	3.48	.546	A
	301만원 이상	3.41	.581	A	3.46	.679	A	3.50	.658	A
	F값	10.531***			6.448***			6.974***		
생활수준	상	3.27	.601	A	3.39	.649		3.31	.490	
	중	3.38	.578	A	3.43	.687		3.53	.652	
	하	3.13	.484	B	3.19	.733		3.49	.578	
		F값	4.369**			2.507			.677	

* $p < .05$ ** $p < .01$ *** $p <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실시 후 동일 문자 표기는 공통집단을 뜻함.

(2) 문제해결기술

배경변인에 따른 문제해결지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규정과 구성화 영역에서는 배우자 유무,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자 집단이($p<.001$), 부부관계에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p<.001$)과 부모-자녀관계에 '만족'이라 응답한 집단($p<.001$)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으면서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문제를 규정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안적 해결책 산출 영역에서는 배우자 유무, 가족형태, 부부관계 만족도,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자 집단이($p<.001$),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2·3세대 집단이($p<.05$), 부부관계($p<.01$)와 부모-자녀관계($p<.05$)에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대안적 해결책을 더 많이 산출해내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성별, 학력, 배우자 유무,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가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p<.05$),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 이상 집단이($p<.05$),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자 집단이($p<.05$), 부부관계에 '만족'이라 응답한 집단($p<.001$)과 부모-자녀관계가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p<.001$), 가계소득이 월 301만원 이상인 집단의 경우 의사결정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이면서 고졸이상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가족관계가 만족스럽고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여러 대안 중 최선책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해결책 수행과 확인 영역에서는 종교, 배우자, 가족형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가계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종교에 따라서는 기독교 집단이($p<.05$),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자 집단이($p<.05$),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2·3세대가구 집단($p<.05$), 부부관계 만족도에 따라서는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p<.05$)과 부모-자녀관계에 '만족'이라 응답한 집단($p<.05$), 그리고 가계소득이 월 301만원 이상인 집단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기독교이면서 배우자가 있고, 다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럽고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수행하고 이를 추후 평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배우자 유무,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문제해결기술 전체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배우자 유무의 경우는 유배우자의 경우 문제해결기술이 더 높다는 엄태완과 이기영(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가족관계가 문제해결기술의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족관계는 개인의 문제해결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 표 -12 >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 문제해결기술

(N=298)

변인	분류	문제해결기술											
		문제규정과 구성화			대안적 해결책산출			의사결정			해결책 수행과확인		
		M	SD	D	M	SD	D	M	SD	D	M	SD	D
성	남자	3.52	.641		3.54	.628		3.55	.60		3.40	.52	
	여자	3.58	.517		3.52	.528		3.41	.59		3.31	.48	
	t값	-.773			.351			1.884*			1.605		
학력	중졸이하	3.53	.461		3.49	.291		3.39	.480	B	3.24	.457	
	고졸	3.53	.578		3.48	.592		3.41	.593	A	3.30	.461	
	대졸	3.62	.561		3.62	.566		3.58	.601	A	3.40	.552	
	대학원이상	3.48	.651		3.38	.438		3.43	.680	A	3.45	.382	
	F값	.583			1.261			2.654*			1.142		
종교	무교	3.57	.455		3.55	.455		3.48	.565		3.34	.420	B
	기독교	3.66	.624		3.61	.549		3.47	.593		3.47	.566	A
	천주교	3.50	.613		3.54	.663		3.49	.563		3.18	.480	B
	불교	3.46	.598		3.42	.355		3.44	.675		3.29	.501	B
	기타	3.52	.572		3.42	.631		3.23	.646		3.36	.369	B
	F값	1.305			1.139			.452			2.424*		
배우자	유	3.58	.551		3.55	.566		3.48	.595		3.36	.487	
	무	3.18	.661		3.15	.447		3.19	.641		3.08	.490	
	t값	2.820***			2.765***			1.898*			2.271*		
가족 형태	3세대	3.80	.504		3.80	.365	A	3.55	.541		3.45	.557	A
	2세대	3.56	.561		3.53	.570	A	3.48	.606		3.36	.468	A
	부부가구	3.46	.501		3.42	.388	B	3.24	.572		3.12	.561	B
	F값	2.316			2.916*			1.788			3.099*		
부부 관계 만족도	만족	3.66	.532	A	3.62	.525	A	3.59	.589	A	3.42	.493	A
	보통	3.54	.532	A	3.49	.616	A	3.33	.582	B	3.27	.461	A
	불만족	3.17	.531	B	3.20	.418	B	3.20	.480	B	3.14	.487	B
	F값	10.278***			7.536**			9.492***			5.745*		
자녀 관계 만족도	만족	3.65	.521	A	3.60	.533	A	3.55	.597	A	3.40	.499	A
	보통	3.40	.625	B	3.41	.608	A	3.22	.586	A	3.23	.452	B
	불만족	3.32	.529	B	3.35	.471	B	3.32	.516	B	3.23	.447	B
	F값	7.220***			4.493*			8.179***			3.774*		
가계 소득	100만원 이하	3.48	.646		3.44	.633		3.12	.622	B	3.27	.624	B
	101-300만원	3.56	.525		3.53	.501		3.36	.546	B	3.26	.465	B
	301만원 이상	3.56	.593		3.52	.609		3.56	.604	A	3.40	.489	A
	F값	.104			.109			6.082***			3.153*		

* $p < .05$ ** $p < .01$ *** $p < .00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실시 후 동일 문자 표기는 공통집단을 뜻함.

4. 배경변인과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문제 3>인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 독립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설명력의 증가를 보는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독립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없었으며 <부록 - 1 >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모델 I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배우자 유무, 자녀해당기, 가족형태, 가족관계, 가계소득, 생활수준 변인을 투입하였고, 모델 II에서는 가족스트레스를 추가하였으며, 모델 III에서는 가족탄력성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를 <표-13>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 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의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델 I에서의 설명력은 2.5%로 나타났으며, 배우자 유무($\beta=.141, p<.05$)와 가계소득($\beta=.147, p<.05$)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으며 가계소득이 101만원 이상으로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모델 II에서는 가족스트레스 변인을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설명력은 27.5%로 나타나 25%의 증가량이 나타났다. 이 때, 배경변인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가족관계스트레스($\beta=-.245, p<.01$)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모델 III에서는 가족탄력성 변인을 추가함에 따라 설명력은 51.0%, 증가량

은 23.5%로 나타났다. 유의한 변인으로는 부부관계 만족도($\beta=.159, p<.05$), 가계소득($\beta=.144, p<.05$), 역할안정성($\beta=.171, p<.05$), 개방적 감정표현($\beta=.276, p<.001$),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beta=.225, p<.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관계에 만족하고, 가계소득이 101만원 이상으로써, 역할안정성이 높고, 가족 구성원 간 개방적인 감정표현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원이 상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일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모델 I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중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우자 유무와 가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델 II에서는 이러한 배경변인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가족관계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최종 모델인 모델 III의 분석 결과 가족탄력성 요인이 투입되면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인 배경변인 중 부부관계 만족도와 함께 가계소득의 영향력이 되살아났고, 가족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사라졌으며, 가족탄력성 요인 중 조직유형의 역할안정성 요인, 의사소통 과정 요인 중의 개방적 감정표현과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때, 가족스트레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가족탄력성이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결과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가족에게는 적응력이 결정적이라고 한 Boss(198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 과정 중 개방적 감정표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p<.001$)이고, 다음으로는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p<.01$), 조직유형의 역할안정성($p<.05$) 순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부부관계 만족도($p<.05$)와 가계소득($p<.05$)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결국 가족탄력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모델 I에서 모델 III까지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가족탄력성 변인이 투입되면서 가족 스트레스의 영향력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가족 내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그 가족의 탄력성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중년기 가족 및 사회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으며, 문제에 직면했을지라도 이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문제해결지향과 문제해결기술의 각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체를 종속변인으로 분석하였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동기적 요소인 문제해결지향을 거쳐 그 후에 직접적으로 행동을 취하게 되는 문제해결기술을 발휘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과정적 접근성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 표 -13 > 배경변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N=298)

변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성	.193	.101	.101	.108	.058	.061
연령	.017	.009	.033	.034	.054	.055
학력	.039	.012	-.182	-.105	-.075	-.043
종교	.223	.115	.144	.148	-.007	-.007
배우자 유무	.685	.141*	.296	.139	.254	.114
자녀 해당기	-.080	-.039	-.018	-.017	-.020	-.018
가족형태	.090	.017	.565	.176	.263	.085
부부관계 만족도	-.085	-.024	-.007	-.004	-.266	-.159*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024	-.006	-.218	-.102	-.229	-.094
가계소득	.768	.147*	.208	.075	.389	.144*
생활수준	.229	.097	.064	.055	.010	.009
가족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175	-.245**	.055	.076
경제문제 스트레스			.013	.022	-.024	-.039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			.016	.024	.021	.033
건강 및 가족상실 스트레스			-.028	-.080	-.021	-.060
가족탄력성						
신념체계	가족통제감				.204	.173
	가족강점				.101	.102
조직유형	역할안정성				.135	.171*
	가족응집력				-.103	-.127
	가족자원 활용도				.087	.076
의사소통 과정	의사소통명확성				.101	.129
	개방적감정표현				.213	.276***
	상호협력적문제해결				.153	.225**
상수		1.212		3.182		2.825
F		1.431*		1.669*		6.658***
R² 증가량		-		.250		.235
R²		.025		.275		.510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 남 = 1, 여 = 0 / 연령 : 50대 = 1, 40대 = 0 / 학력 : 고졸이상 = 1, 중졸이하 = 0 /

종교 : 유 = 1, 무 = 0 / 배우자 유무 : 배우자 유 = 1, 무 = 0 /
자녀해당기 : 청소년이하 = 1, 대학생 이상 = 0 / 가족형태 : 2·3세대 = 1, 부부가구 = 0 /
부부관계 : 만족 = 1, 보통, 불만족 = 0 / 자녀관계 : 만족 = 1, 보통, 불만족 = 0
가계소득 : 101만원 이상 = 1, 100만원 이하 = 0 / 생활수준 : 상·중 = 1, 하 = 0

V. 논의 및 결론

중년기는 가족·사회적으로 깊이 관여되며 그 관계망이 더욱 확산되는 시기이다. 또한 가족 내적으로는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을 안고 있으며, 가족 외적으로는 직무 수행을 해야 하는 역할 과중의 세대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여러 신체적 변화와 함께 심리·정서적으로 재정립해야 하는 여러 가족관계와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을 보았을 때, 중년기야말로 가족 체계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핵심 원동력인 동시에 가장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할 대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년기는 아동이나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주목을 받아왔으며, 중년기에 대하여 접근을 한다 할지라도 우울, 자존감, 스트레스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를 이루어 왔다. 게다가 이러한 접근들은 결점 관점에 입각한 것으로, 중년기를 병리적·문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치료나 교육 개입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의 가장 기본적 단위인 가족을 떠나 생각할 수 없고, 특히 중년기는 인생을 돌아보고 재정비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건강성이 내재된 시기로서 결점관점뿐 아니라 강점관점에서도 중년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의 가족적 차원을 더욱 깊이 바라보고자 40~50대의 남녀를 중년기로 정의하고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각 응답자에게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총 29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조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McCubbin(1982), 김안자(2005)의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하였고, 가족탄력성은 Antonovsky와 Sourani(1988), Olson과 동료들(1985), Walsh(1998), 김미옥(2001) 등의 문항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경우는 D'Zurilla와 Nezu(1990), 박소라(1998)의 문항을 참고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은 SPSS 12.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그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스트레스의 경우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경제문제 스트레스가 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여전히 일·가족 양립에 대한 문제와 자녀교육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중년기에게 당면한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가족탄력성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신념체계가 중간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는 가족에 대한 통제감과 강점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유형 또한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수행하는 역할 분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원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친밀감, 일체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 내 위기가 발생했을 때 탄력적이고 효과적으로 가족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편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정 점수는 모두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가족의 의사소통이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족원 간에 서로의 감정을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가족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 구성원 간에 협력적으로 문제를 비교적 잘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인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먼저 문제해결지향 척도가 3.41점, 문제해결기술 척도가 3.72점으로 나타나, 일

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과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아 나가는 능력이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척도별 하위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해결지향 척도에서 인지반응은 3.33점, 정서반응 3.38점, 행동반응 3.5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의 깊게 문제를 인식하려 하며, 문제 상황 하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이고,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려는 경향성이 다소 높은 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문제해결기술 척도에서는 문제규정과 구성화가 3.56점, 대안적 해결책 산출 3.53점, 의사결정 3.46점, 해결책 수행과 확인이 3.34점으로 나타나 문제해결기술 또한 전반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사대상자들이 대체적으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와 관련된 실제적인 정보를 얻어 문제를 세분화시키고, 상황을 재평가하며, 해결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능한 많은 해결 대안들을 생각해내어 구체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각해 낸 여러 대안들 중 가장 좋은 해결책을 비교분석하여 선택하며, 해결책의 실제 수행 후 그 결과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점수가 모두 중간값 이상으로 나타나 결국 중간 이상의 가족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면서 중간 이상의 가족탄력성이 있고, 중간 수준 이상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즉, 조사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편은 아니지만,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요약과 각각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① 가족스트레스

첫째, 가족관계 스트레스의 경우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부부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반면 부모-자녀관계는 만족스럽고 생활수준이 보통이거나 낮은 집단의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높았다.

둘째, 경제문제 스트레스의 경우 직업과 생활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관리직, 생산·단순노무직, 전문직 집단과 생활수준이 중간이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경제문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 중 전업주부의 경우는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 사무직의 경우 또한 고정된 수입이 있고,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일정 수준의 평균 수입이 존재하지만, 생산·단순노무직의 경우 최근의 경기 불황으로 인해 고정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부부가구이며 자녀관계에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의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 때,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이 줄어들고, 그만큼 가족 안에서 수행해야하는 역할이 유배우자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과 가족을 양립해야 하는 데서 오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부부가구인 경우가 2·3세대가구인 경우보다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는 2·3세대 가구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부부가구에 비해 많고,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자신이 일과 가족을 동시에 책임져야만 한다는 부담이 줄어 상대적으로 부부가구의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다세대 가구의 경우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은 비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구성원

이 함께 부담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써, 가족 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부가구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건강 및 가족상실 스트레스에서는 부부관계에 '보통' 혹은 '불만족'하고 부모-자녀관계에 '불만족'하는 집단의 건강 및 가족상실 스트레스가 높았다. 이 때,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대체로 불만족하는 집단이 가족의 건강 및 상실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따라 가족의 건강에 대한 염려나 부담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결국 가족관계는 가족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가족스트레스의 결과에서 눈여겨 볼 점이 몇 가지 있는데,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의 경우 부모-자녀관계가 '보통'이거나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집단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체계의 항상성 유지 경향에 따라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계속적으로 더욱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를 원만히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일과 가족 사이에서도 균형을 잘 이루어야만 한다는 데 대한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된다. 즉, 현재의 만족스러운 부모-자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측면이나 일·가족 양립의 측면에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경우 생활수준이 '중' 또는 '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상'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집단보다 가족관계 및 경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신이 생각하는 생활수준에 따라 가족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서로 다르며,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가계 재정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스트레스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비단 가족 구조나 관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가족생활을 더욱 원만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접근하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가족탄력성

a. 신념체계

신념체계의 경우 첫째, 가족통제감 영역에서는 학력이 높고 배우자가 있으며 다세대 가구이면서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에 만족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통제감이 높았다. 가족통제감은 가족구성원이 가족의 위기나 역경에 대한 이해 및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나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에 따라 교육 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가 위기나 역경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강점의 경우 배우자가 있고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우며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가족강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배우자 유무, 부부관계 만족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가계소득이 신념체계의 모든 영역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의논하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줌으로써 가족의 위기나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가족에 대한 성실성, 신뢰감, 자부심이 높으며 가족구성원이 문제를 다루는 데 일치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할수록 위기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기를 수용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 가족의 강점과 가능성을 확신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가족관계가

만족스러울수록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가계소득에 따른 결과는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심리·정서적 여유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가족 내에서도 위기나 역경에 대한 수용능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가족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b. 조직유형

첫째, 역할안정성 영역에서는 남자이고 유배우자이면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역할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역할안정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수행하는 역할분담에 대한 안정성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남성의 가족이 여성의 가족보다 안정적인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된 것은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자신의 가족 내 역할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유배우자의 경우 역할안정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족 구성원이 일상의 역할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역할부담이나 역할과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일정하고 안정된 수준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응집력 영역에서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운 집단의 가족응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자원 활용도 영역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세대이고,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하며, 생산·단순 노무직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계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자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종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Walsh의 가족탄력성 요인 중 신념체계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초월과 영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종교는 가족탄력성에 긍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세대가구의 경우 가족자원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부부 단독가구보다 2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수와 계층이 다

양해지고, 이에 따라 가족 전체에 자원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생활수준이 '상'이나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하'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가족자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지각된 생활수준의 정도에 따라 인식하는 가족 자원의 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대체로 만족하는 집단이 역할안정성, 가족응집력, 가족자원 활용도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가족관계가 원만할수록 가족 구성원 간의 역할분담이 안정되어 있고, 친밀감과 유대감이 높으며, 가족 자원 또한 풍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산·단순노무직의 경우가 전업주부, 상업, 일반사무직, 관리직, 전문직보다 가족자원 활용도가 낮았고,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가 가족자원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경제적 차원의 자원이 가족자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자원에서 경제상황을 빼 놓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c. 의사소통 과정

첫째, 의사소통의 명확화 영역에서는 부부관계에 '만족' 혹은 '보통'이라 응답한 집단의 의사소통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방적 감정표현 영역에서는 연령대가 40대로 낮고, 배우자가 있으며,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더욱 개방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0대와 50대도 시대적 상황에 차이가 있음에 따라 가족원 간에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개방된 시대를 거친 40대의 경우가 개방적인 감정표현에 상대적으로 더 익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배우자의 경우 개방적 감정표현 점수가 더 높았던 것은 부부가 함

게 있음으로써 서로의 감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가족원 간에도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감정표현 측면에서의 개방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영역에서는 대졸 이하이면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럽고 생활수준이 중 또는 하라 생각하는 집단의 상호협력적 문제해결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하의 경우가 대학원 이상의 경우보다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꼭 교육수준이 높다고 해서 가족 구성원 간에 문제를 협력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능력이 발달한 것이 아니라 교육수준보다는 가족 관계와 같은 가족 내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 사료된다. 또한 생활수준도 학력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생활수준이 꼭 높아야만 문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가족원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선 부부관계 만족도의 경우 의사소통과정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즉, 의사소통을 명료하고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개방적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력하여 갈등을 다루어 나가는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부부관계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부관계가 원만할수록 이러한 의사소통에 대한 명확성, 개방성, 협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의 경우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경우가 개방적 감정표현이 높고 상호협력적 문제해결 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할수록 서로 간에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서로의 감정을 더욱 솔직하게 노출시킬 수 있으며, 문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러한 개방성을 바탕으로 상호 간 효과적인 협력과 일치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유배우자의 경우 일·가족 양립 스트레스가 높은 반면 가족탄력성은

대체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도움관계망 혹은 갈등관계망 중 하나로써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도움관계망으로도 인식될 수 있고 갈등관계망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는 인식의 유동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일과 가족을 동시에 책임지고 각각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무배우자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배우자를 부담이나 갈등관계로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위기 상황에서는 부부가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 심리·정서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서로에게 도움 요인이 되어줌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가족의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③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a. 문제해결지향

첫째, 인지반응 영역에서는 남자이면서 대졸 이상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다세대 가구이고,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우며, 생산·단순노무직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계소득이 월 101만원 이상이고, 생활수준은 중간 이상이라 생각하는 경우 인지반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 이상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인지반응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던 것은 교육수준에 따라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직업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직업은 교육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앞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가 인지반응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생활수준에 따른 결과는 대체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고 생각할 경우 생활수준이 높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 소득이 높은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력과 직업 부분에서 인지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둘째, 정서반응 영역에서는 남자이고 배우자가 있으며, 다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럽고 가계소득이 월 101만원 이상인 경우 정서반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동반응 영역에서는 남자이면서 배우자가 있고, 3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대체로 만족하고 가계소득이 월 101만원 이상인 경우 행동반응 점수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별, 배우자 유무, 가족형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 가계소득이 문제해결지향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인지반응, 정서반응, 행동반응 모두 높게 나타났는데, 인지반응은 문제를 인식하고 분류하는 작용으로, 문제에 대한 지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남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반응 점수가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정서반응과 행동반응은 인지반응에 뒤 따라오는 것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전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인지적 반응을 하고, 이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우울이나 불안의 정도가 달라지는 정서적 반응을 보인 후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한 수용과 배타, 긍정과 부정, 자신감과 불안감, 적극과 소극 같은 행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인지반응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후속 반응으로 뒤이어 나타나는 정서반응이나 행동반응 점수 또한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문제를 인식하는 능력이 높으며, 이러한 높은 수준의 문제인식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반응보다는 긍정적인 정서반응을 보이고,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행동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가 있는 경

우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부터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관계망으로써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3세대 혹은 2세대 가족 집단이 부부 단독가구 집단보다 문제해결지향 전 영역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결과는 개인에게 발생한 문제라 할지라도, 가족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하는 것이고 결국 가족의 영향을 받아 문제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부부 단독가구보다 2·3세대가구의 경우 가족구성원이 다양하고 그에 따른 상호작용이나 이들의 영향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선별적으로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부부관계 만족도와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의 경우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가 원만할수록 인지·정서·행동반응이 긍정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특히 정서반응과 행동반응이 인지반응에 영향을 받아 뒤이어 오는 것이라 보았을 때, 결국 가족관계 만족도는 문제에 대한 인식에 매우 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의 경우, 소득은 학력과 직업에 직결되는 것으로써, 학력과 직업의 경우에 인지반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와 직결되는 소득은 결과적으로 인지반응, 정서반응, 행동반응 전체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이라 사료된다.

b. 문제해결기술

첫째, 문제규정과 구성화 영역에서는 유배우자이면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문제를 규정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안적 해결책 산출 영역에서는 유배우자이면서 다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고,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 대안적 해결책을 더 많이 생각해내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남자이면서 고졸 이상이고, 유배우자이며,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럽고 가계소득이 높은 경우 여러 대안 중 최

선택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은 문제 해결을 위해 생각해 낸 대안들의 각각의 결과를 고려하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산출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남성의 점수가 더 높게 나온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보다 이성적 판단을 우선시 하고, 비교 분석 능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력에서 나타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의사결정 과정은 일정 수준의 지적 능력을 요하는 것이며, 이것은 교육수준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해결책 수행과 확인 영역에서는 종교가 기독교이면서 유배우자이고, 다세대 가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가 만족스럽고 가계 소득이 높은 경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수행하고 이를 추후 평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해결기술 영역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배우자 유무,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가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유배우자의 경우 무배우자보다 문제와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비교하고, 문제의 핵심을 규정하는 능력이 높으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구조화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보고, 여러 대안들 중 가장 좋은 대안을 산출해내며, 최종적으로 선택한 대안을 실행한 후 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제해결지향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상호작용의 긍정적 측면이라 볼 수 있으며, 배우자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만족도의 결과를 보았을 때, 결국 가족관계는 문제해결기술 전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이며, 가족관계가 개인의 문제해결기술 능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부부 단독가구인 경우보다 2·3세대 가구의 경우 더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수행한 해결책의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문제해결지향에서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결국 문제해결기술 또한 개인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의사결정 점수 및 해결책 수행과 확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소득이 높은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그만큼 해결책 수행 후에도 이에 대해 평가를 내려 볼 수 있는 여유를 상대적으로 더 갖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특히 배우자 유무와 가족관계가 문제해결기술 능력 전반에 걸쳐 유의도가 일관되게 나타남에 따라 문제해결기술은 결국 개인적인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요인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문제해결기술 능력은 가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문제해결지향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결국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비단 개인만의 능력이 아니라 가족차원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배우자 유무와 가족관계 만족도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전반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중년기 개인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가족요인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에 가족에 대한 관여가 깊어지고 그만큼 가족으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중년기 가족 차원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가계소득과 연관되는 학력 및 직업요인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학력 및 직업요인에서 중·상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가계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경변인과 가족스트레스,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모델 I, II, III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델 I에서 배경변인을 투입한 결과 배우자 유무와 가계소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가 있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설명력은 2.5%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 후, 모델 II에서 가족스트레스 변인을 투입한 결과 배경변인의 영향력이 사라진 반면, 가족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설명력은 27.5%였고 설명력의 증가량은 25%로 다소 호전된 설명력을 보였다. 즉, 모델 I에서 영향을 미쳤던 배우자 유무 및 가계소득의 영향이 사라지고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다시 모델 III에서 가족탄력성 변인을 투입한 결과, 모델 II에서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모델 I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가계소득의 영향력이 부부관계만족도와 함께 나타났고, 가족탄력성 요인 중 조직유형의 역할안정성, 의사소통 과정의 개방적 감정표현 및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최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설명력은 51.0%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23.5%의 설명력 증가량을 보였다.

결국,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만족스러운 부부관계, 높은 가계소득, 높은 수준의 가족탄력성을 가질수록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즉, 부부관계에 대하여 만족스럽다 생각하고, 가계소득이 높으면서 가족의 역할 분담이 안정적으로 수행될수록, 가족 구성원 간에 개방적인 감정표현을 나누고 문제 및 위기 발생 시 상호 협력적으로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방적 감정표현이며, 그 다음이 상호 협력적 문제해결, 역할안정성, 부부관계만족도, 가계소득 순이었다. 이를 살펴보면 결국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요인이며, 결국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가족 차원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함의는 앞서 살펴본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검증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앞으로 중년기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재차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모델 I부터 III까지 변인들의 영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가족스트레스는 가족탄력성이 투입되었을 때 그 영향력을 잃는 것으로 보아, 중년기 가족 내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가족 탄력성이 높은 수준을 보인다면 충분히 이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결점관점보다는 강점관점에서의 가족 탄력성을 더욱 강조하고 강화시키는 것은 개인 및 가족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되는 바이다.

위의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결과는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이다. 즉, 가족스트레스는 가족탄력성에 의해 극복될 수 있고 사회적 문제해결능력도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가족탄력성은 결국 건강한 삶 혹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인인 것이다. 따라서 상담이나 교육장면에서 가족스트레스를 직접 다루어 주는 것 보다는 가족의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 접근 방법을 전환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즉, 가족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이 그들의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 및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통한 성장의 기회를 찾아냄으로써 기능적인 가족의 상태로 돌아오는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개인 및 가족에게 가족탄력성이 강력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결국 '강점관점'에 입각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탄력성은 '전혀 상처받지 않음'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에서 유능감으로 대처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현저히 낮추고, 시간과 환경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다. 결국 가족탄력성은 적응력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러한 적응적인 능력, 재생력, 건강성에 초점을 두는 강점관점이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욱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문제상황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상황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의 역동적인 과정이 중요한 것이며, 문제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결점을 발견하고 강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연구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나 문제상황 그 자체보다 이에 대한 해결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가족관계가 매우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의 질이 개인 및 가족에 있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결과이다. 특히 부부관계의 경우 영향력의 검증에서 가족탄력성과 함께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가족탄력성이나 강점관점을 언급하는데 있어서 부부관계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비단 개인적 차원의 능력일 뿐 아니라 가족 차원의 능력임이 밝혀진 바, 개인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은 개인·가족차원 전반에서 중요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족 스트레스, 가족탄력성,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한국형 척도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일부 한국적 상황과 맞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아무리 훌륭한 척도라 할지라도, 그의 사회적 상황이나 문화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척도에 대한 한국형 척도개발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제기되는 바이다. 한국형 척도의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후속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위하여 유의추출법에 입각한 조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완벽히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대상자의 경향을 살펴보았을 때, 주목해야 할 것 중 하나는 가족스트레스 하위요인 중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는 영역이 가족관계가 아니라 일·가족 양립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의 경우 중간세대로서의 경제적, 가족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부담이 매우 큰 동시에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가족관계 자체보다는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당면 과제로 인하여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높게 느껴진다는 결과는 결국 이 두 체계의 양립을 위해서는 외부의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정책적인 원조와 함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적인 접근에서는 가족관계나 경제문제 등을 직접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자원을 찾아주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가족탄력성에는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 대한 취약성이라는 ‘위험요인’과 이러한 취약성을 극복하는 적응력, 회복력, 유능감, 위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 등의 ‘보호요인’이 함께 존재한다. 이 때 예방과학적 차원에서 이러한 ‘보호

요인'은 가족의 탄력성을 유지·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향후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보호요인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가족탄력성을 반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즉, 결점관점에 입각한 기존의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에 강점관점에 입각한 가족탄력성을 함께 반영시킴으로써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이 더욱 건강하게 기능하게 되고, 스트레스나 위기상황 하에서도 건강성을 유지·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가족 탄력성에 대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가족 구조 및 가족관계가 가족탄력성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고, 특히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하는 가족관계가 세 가지 하위요인에 강력한 유의도를 나타내는 바, 가족탄력성의 수준은 가족관계 및 그들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양상을 띠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가족의 탄력성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가족상담이나 교육장면에서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의 각 하위영역별 가족관계의 측면을 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관계가 개인과 가족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탄력적인 가족 및 건강한 가족의 기초가 되는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도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지원을 시행·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족탄력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가족탄력성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바, 후속 연구에서 가족탄력성의 수준별 접근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생활주기의 단계별 접근이 그 가족의 삶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더욱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탄력성의 수준별 접근 또한 더욱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한 방법이라 사료되며, 이를 위해서는 가족탄력성의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비단 개인만의 능력이 아니라 가족차원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접근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요인들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가족 요인을 포함하여 접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도 가족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덟째, 본 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문제해결지향 전체 영역에 강한 유의도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데, 문제해결지향은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적 요소이며 이를 토대로 결국 가계소득이 문제해결에 대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가계소득은 분석결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학력 및 직업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시에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개인뿐만이 아닌 가족차원의 능력임이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 결과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 가계소득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특히 취약층인 저소득층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보장을 확대함으로써 가계소득 측면에서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중년기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중년기는 일반적으로 자녀 독립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으나, 최근 들어 만혼으로 인한 자녀의 독립이 늦어지고, 본 조사대상자 자체에도 이미 늦은 결혼으로 인해 자녀가 유아기이거나 학동기인 경우가 많았다. 물론 생활연령에 따라 중년기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학자들마다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이 자체만으로 중년기를 구분하는 데 무리가 있다 생각되는 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중년기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후속 연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년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중년기에 대해 개인적 차원이나 부적응적인 면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차원 및 강점관점에서의 접근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족차원 및 강점관점에 입각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가족탄력성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더 이상 개인차원이 아닌 가족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 새롭게 도출됨에 따라 가족탄력성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어지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있어서도 기존의 연구방식과 다른 더욱 포괄적이고 통합적이며, 가족을 아우르는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강 인(1989).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정화(2005). 한부모 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 적응에 미치는 영향-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중돈 · 김동배(2005).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학지사.
- 권지은(2003). 부모 및 또래 애착, 문제해결방식과 자아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고은(2005). 가족탄력성이 장애아동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89). **중년기 연구**. 서울: 교문사.
- _____(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 _____(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 가정학회지**, 29(1), 203-216.
- 김미옥(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Family Resilience)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2005).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안자(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애순(1993). 개방성향과 직업, 결혼자녀관계가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규(1980). 연령, 성, 사회계층별 일상생활상의 스트레스와 대응방법의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2003). 문제해결적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따돌림 당하는 중학생의 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1992).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과 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2008). 치매노인부양가족의 가족탄력성과 지역사회자원 활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8). 가족레질리언스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지(2007). 정신분열 환자의 개인사회적 기능과 가족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가족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83).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원 · 신은영(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성격과의 관계. **논문집, 17, 16**, 경희대학교 교육문제 연구소
- 김현진(2008). 탈북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자(1998).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따른 역기능적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정자, 조맹제, 최은진(1996).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96-29**.

- 박 경(2004). 부정적 생활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265-283.
- 박금자(1999). 중년기 여성의 우울 구조모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숙(1996). 아버지의 대화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라(1998). 정신분열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문제해결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순(1991). 중년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자아개념과 우울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종열(1985). 가족의 일상생활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윤정(2006). 사회적 지지가 약물남용청소년들의 대처기술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지혜(1998).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자아개념과 우울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정현(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복지학, 9**, 31-53.
- 송영경(2006).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 및 학교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혜섭(2006). 중년기 위기와 가족 스트레스. **생활과학연구, 11**, 84-90.
- 엄태완 · 이기영(2004). 북한이탈 주민의 우울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8**, 5-35.
- 오세진 · 김형일 · 임영식 · 이철원 · 김병선 · 김정인 · 김한준 · 양병화 · 양돈규 · 최창호(1996). **심리학 개론**. 서울: 학지사.
- 왕정희(2001).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력과의

-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상미(2008).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애착유형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수희(2004).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1985).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윤여정(2001). 중년여성의 심리사회적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란(2006). 정서표현성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자(2007). 중년기 부부갈등 치유를 위한 건강한 부부대화법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희(2002). 가출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주(2002). 중년남성의 직무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사회적 지지에 따른 삶의 만족도.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정·안창일(1997). 우울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85-100.
- _____ (1997). 기분상태와 상황요인이 사회적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101-118.
- 이선애(2004). 만성질환아동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선호(1999).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 지각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7). 아동의 사회적 지지·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 경인교

- 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분 · 김유숙 · 정혜정(2005). **가계도- 사정과 개입**. 서울: 학지사.
- 이은영(2002). 과제 상황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과 정서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태희(2003).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진(200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유미(2007). 이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족탄력성이 가족적응에 미치는 영향: 모자보호시설 가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효영(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보애(2003). 부모의 사회계층 및 양육태도와 고등학생의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자(2003).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문자(2000).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 전세경(1988).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자(1983).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길(2001).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

- 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2001). 가족 연구의 발달적 접근. 가족관계학회편. **가족이론**. 서울: 교문사.
- 정현숙·유계숙(2001). **가족관계**. 서울: 신평.
- 조예경(2002). 자원봉사활동이 중년기 여성의 우울정도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명훈(2008). 중년기 남성의 여가활동유형과 인구사회적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동숙(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76**, 165-179.
- 최동희(1990).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와 시부모 부양 행동.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연실(1996).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경(1993). 중년기 남성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숙(2007). 내·외 통제성이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정(2006).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업계 여고생의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숙(2004). 중년기 여성의 가족 스트레스와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혜·김진희(2003). 일·가족 상호작용에서의 성별차이. **한국사회학**, **37**(3), 57-83.
- 홍선경(1996). 중년기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우울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주연(2007). 중년기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H., & Gooloshian, H.(1988). Human systems as linguistic systems. *Family Process*, 27, 371-393.
- Antonovsky, A., & Sourani, T.(1988). Family sense of coherence and family adaptation. *Journal of Family and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92.
- Baker, S. R., & Williams, K.(2001). Short Communication: Relation Between Social Problem-solving Appraisals, Work Stre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Male Firefighters. *Stress and Health*, 17, 219-229.
- Barnard, C. P.(1994). Resiliency: A shift in our perception?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 135-144.
- Beavers, W. R., & Hampson, R. B.(1990). *Successful familie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Norton.
- _____ (1993). Measuring family competence: The Beavers systems model.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 T.(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 Bernard, J.(1976). Stress and the Family. *Journal of Home Economics*, 68(5), 6-10.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rland, D. C.(1978). Research on middle age: An assessment. *The*

- Gerontologist*, 18(4), 379-386.
- Boss, P. G.(1975). Psychological father absence and presence: A Theoretical formulation for an investigation into family systems interac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_____ (1987). Family stress: Perceptions and context. In M. B. Sussman & S.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695-723.
- _____ (1988). *Family Stress Management: Family Studies Text Ser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Boss, P. G., Gage, G., Greenberg, J., & McCall, D. P.(1985). The Management of Stress in Mid-Life Minnesota Families, St. Paul, Minnesota: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Boss, P. G., McCall, D. P., & Greenberg, J.(1987). Normative Loss in Mid Life Families: rural, Urban, and Gender differences. *Family Relations*, 36(4), 437-443.
- Burr, W. B.(1973). *Theory construction and the sociology of the family*.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Carter & McGoldrick(1998).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2nd ed.)*. Boston: Allyn & Bacon.
- Chang, R. C. Y., Bemak, F., & Wong, S.(2000). Vietnamese Refugees's Levels of Distres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on: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Counseling.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2(2), 150-161.
- Cicchetti, D., & Rogosch, F. A.(1997). The role of self organization in the promotion of resilience in maltreatment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629-647.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onger, R. D., & Conger, K. J.(2002). Resilience in Midwestern families: Selected findings from the first decade of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4(2)*, pp.361-372.
- Danielson, C. B., Bissell, B. H., & Fry, P. W.(1993). *Families, Health & Illness: Perspectives on coping and Intervention*. St. Louise: Mosby-year Book. Inc.
- Dixon, D. N., Heppner, P. P., Peterson, C. H., & Ronning, R. R.(1979). Problem-solving workshop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133-139.
- Dohrenwend, B. S.(1973). Social status and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8(2)*, 225-235.
- Dohrenwend, B. S., & Dohrenwend, B. P.(1981), *Stressful Life Events and Their Context*. New York: Prodist.
- Dooley, D. & Prause, J.(2002). Mental Health and Welfare Transitions: Depression and Alcohol Abuse in AFDC Wom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6)*, 787-814.
- Dugan, T., & Coles, R.(1989). *The children in our times: Studies in the development of resiliency*. New York: Brunner/Mazel.
- Duvall, E.(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5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mpany.
- D’Zurilla, T. J., Chang, E. C., Nottingham, E. J., & Faccini, L.(1998). Social Problem-Solving Deficits and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risk in college student and psychiatric inpatients. *Journal of*

- Clinical Psychology*, 54, 1091-1107.
- D'Zurilla, T. J., & Goldfried, M. R.(1971). Problem-solving and behavior modifica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8, 107-126.
- D'Zurilla, T. J., & Nezu, A. M.(1982). Social problem-solving in adults. in P. C.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Academic Press.
-
-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SPSI). *Psychological Assessment*, 2, 156-163.
- Epstein, N., Bishop, D., Byan, C., Miller, I., & Keitnor, G.(1993). The McMaster model: View of Healthy Family Functioning.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nd ed.)*. New York: Norton.
- Farrell, M. P., & Rosenberg, S. D.(1981). *Men at Midlife*. Boston: Auburn.
- Fleming, R. A., Baum, J., & Singer, E.(1984). Toward an integrative approach to the study of 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39-949.
- Frye, A. A., & Goodman, S. H.(2000). Which Social Problem-Solving Components Buffer Depression in Adolescent Girl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4(6), 637-650.
- Garnezy, N.(1974). Vulnerability research and the issues of primary preven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1, 101-116.
- Gergen, K.(1989). Understanding, narration, an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the self. In J. Stigler, R. Shweder, & G. Herdt(Eds.), *Cutural psycholog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tlib, I. H., & Asarnow, R. F.(1979). Interpersonal and impersonal problem-solving skills in mildly and clinically depressed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86-95.
- Gove, W. R. & Shin, H. C.(1989).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divorced and widowed men and women: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amily Issues, 10*(1), 122-144.
- Hanson. & Mintz.(1997). Psychological health and problem-solving self-appraisal in older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433-441.
- Heppner, P. P., & Peterson, C. H.(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 Heppner, P. P., Reeder, B. L., & Larson, L. M.(1983). Cognitive variables associated with personal problem-solving appraisal: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537-545.
- Hill, R.(1949). *Families under stress*. New York: Harper & Brothers.
- _____(1965). *Generic features of families under stress*. H. J.(ed.) *Crisis intervention*. Selected reading,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32-52.
- Hock, E., McKenry, P., Hock, M., Triole, S., & Stewart, L.(1980). Child's school entry: A stressful event in the lives of fathers. *Family Relations, 29*(4), 467-472.
- Hoffman, L.(1990). Construction realities: An art of lenses. *Family Process, 29*, 1-12.
-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Ivancevich, J. M., & Matteson, M. T.(1980). *Stress and work: a managerial perspective*. New York: .Scott foreman and company.
- Jalowiec, A. & Powers, M. J.(1981).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sing research*, 30(1), 10-15.
- Levinson, D. J.(1980). Coceptions of the adult life course. In N. Smelser & E. H. Erikson(Eds.), *Themes of work and love in adulthoo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in, N.(1986). Modeling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in N. Nin, A. Dean and W. Ensel(ed.), *Social Support, Life Events, and Depression*, Orlando: Academic Press.
- Lowenthal, M. F., Thurnher, M., & Chiriboga, D.(1975). *Four stages of life*. San Fransisco: Jossay-Bass Publishers.
- Luthar, S. S., & Zigler, E.(1991).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 6-22.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E.(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 543-562.
- Masten, A. S., Best, K. M., & Garmezy, N.(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 425-444.
- McCelland, J.(1976). Stress and Middle age. *Journal of Home Economics*, 68(45), 16-19.
- McCubbin, H. I., Joy, C., Cuble, A. E., Patterson, J. M., & Weedle, R.(1980).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1), 125-141.

- McCubbin, H. I. & McCubbin, M. A.(1988). Typologies of resilient families: Emerging roles of social class and ethnicity. *Family Relations*, 37, 247-254.
- McCubbin, H. I., McCubbin, M. A. & Tompson, A. I.(1993). Resiliency in families: the role of family schema and appraisal in family adaptation to crises(pp.153-177).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 Challenges for the futur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cCubbin, H. I., Olson, D., Patterson, J., & Wilson, C.(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In D. Olson(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cCubbin, H. I., & Patterson, J. M.(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In H. McCubbin, M. Sussman & J. M. Patterson(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Advance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worth Press.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ischel, W.(1981). A cognitive-social learning approach to assessment. In T. V. Merluzzi, C. R. Glass, & M. Genest(Eds.), *Cognitive assessment*, New York: Guilford.
- Murphy, L., & Moriarty, A. E.(1976). *Vulnerability, coping, and growth: From infancy to adolescence*. New He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Nezu, A. M.(1985).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ress between effective and ineffective problem solv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1), 135-138.

- Nezu, A. M., Nezu, C. M., & Perri, M. G.(1989). Social problem-solving Therapy for unipolar depression: An initial dismantling investig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3).
- O'Connell-Higgins. R.(1983).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capacity for intimacy*. Qualifying paper.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Olsen, S. F., Marshall, E. S., Mandleco, B. L., & Allred, K. W.(1999). Support, communication, and hardness in families with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Family Nursing*, 5, 275-291.
- Olson, D., H.(199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n F. Walsh(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J., & Wilson, M. A.(1983). *Families: What makes the work*.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 Larsen, A. S., Muxen, M. J., & Wilson, M. A.(1985). *Family inventories: Inventories used in a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cross the family life cycle*.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Patterson, J. M.(1991). Family resilience to the challenge of a child's disability. *Pediatric Annals*, 20(9), 491-500.
- Patterson, J. M., & Garwick, A. W.(1994). Theoretical Linkages: Family meaning and sense of coherence. In H. McCubbin. E. Thompson, A. Thompson, & J. Fromer(Ed.), *Sense of coherence and resiliency: Stress, coping, and health Madison: Center for excellence in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Wisconsin.
- Phillips, S. D., Paziienza, N. J., & Ferrin, H. H.(1984). Decision making

- styles and problem solving appraisa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 Reiss, D.(1981). *The Family's Construction of Reality*. Havard University Press.
- Rice, P. L.(1987). *Stress and health: Principles and practice for coping and wellness*. Monterey: Brooks and Cole publishing company.
- Robinson, N. S., Garber, J., & Hilsman, R.(1995). Cognitions and Stress: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n Depressive Versus Externalizing Symptoms During the Junior High Transi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4, 453-463.
- Rosenberg, S. D., & Farrell, M. P.(1976). Identity and crisis in middle aged me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7(2), 153-170.
- Rubin, N. B.(1979). *Women of a certain age*. N. Y.: Harper and Row.
- Rutter, M.(1979). Protective factors in children's response to stress and disadvantage. In M. W. Kent & J. E. Rolf(Eds.), *Primary prevention of psychopathology: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pp.49-74)*, Hanover, NH: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 _____ (1987). Resilience in the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 598-611.
- Secombe, K.(2002). 'Beating the Odds' versus 'Changing the Odds': Poverty, Resilience, and Family Polic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2), 384-395.
- Seligman, M. E. P.(1975). *Helplessness: On depression, development and death*. San Francisco: W. H. Freeman.

- Selye, H.(1974).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 Silliman, B.(1994). Rationale for resilient families concept paper.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 Singer, G. H. S., & Powers, L. E.(1993). *Families, Disability, and Empowerment*.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Shure, M. B.(1981). *Social competence as a problem-solving skill*, in J. D. Wine & M. D. Smye(Eds.), *Soci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 Silliman, B.(1994). Rationale for resilient families concept paper. National Network for Family Resiliency.
- Simeonsson, R.(1995). *Risk, resilience, & prevention: Promoting the well-being of all children*. Baltimore: Paul H. Brookes.
- Spivack, G., Platt, J. J., & Shure, M.(1976). *The problem-solving approach to adjust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Spivack, G., & Shure, M.(1974). *Social adjustment of young children: A cognitive approach to real-life problems*. Washington: Jossey-Bass.
- Spotts, E., Neiderhiser, J. M., Hetherington, E. M., & Reiss, D.(2001), The relation between observational measures of social problem solving and familial antisocial behavior: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4), 351-374.
- Taylor, S. E.(1983). Adjustment to treating events: A theory of cognitive adaptation. *American Psychologist*, 38, 1161-1173.
- Uhlenhuth, E. H.(1974). Symptom intensity and life stress in the ci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1(6), 759-767.
- Vosler, N. R.(1996). *New approaches to family practice confronting economic stress*. SAGE Publications, Inc.
- Walsh, F.(1993). Conceptualization of normal family processes. In Walsh,

- F.(Ed.), *Normal Family processes(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_____ (1998). Editorial: The Resilience of the Field of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4, 269-271.
- _____ (1998). 양옥경 · 김미옥 · 최명민 역(2002). *가족과 레질리언스*, 서울: 나남.
- Walsh, F., & Olson, D. H.(1989). *Utility of the Circumplex model: systematic 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New York: Haworth Press.
- Watzlawick, P., Beavin, J., & Jackson, D.(1967). *Pragmatics of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Norton.
- Weiss, R. S.(1993). Loss and recovery. ed. by M. S. Strobe, W. Strobe, & R. O. Hansson, In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1-284.
- Weller, E. K.(1983). *A profile of male mid-life concer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Wheaton, B.(1985). Models for the Stress-buffering Functions of Coping Resour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s*, 26, 352-364.
- Wolin, S. & Wolin, S.(1993). *The resilience self: How survivors of troubled families rise above adversity*. New York: Vilard.
- Zemore, R., & Dell, L. W.(1983).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skills and depression-pron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231-235.
- Zupicich, S.(2003). Understanding social supportive processes among now ses, urban adolescent mot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teinhardt School of Education New York University.

ABSTRACT

The Effects of Family Stress and Resilience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Middle Age

Park, Ji Hyun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family stress, family resilience and the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middle-aged, motivated by the realization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se issues from a family dimension as well as an individual one, as middle age is regarded as a period of crisis and transition.

Middle age is a turning point in life, a stage which a person has reached after filling various roles inside and outside of the family. Difficulties arising from many interactions have been overcome, and the middle aged person can be reestablished as a healthy individual within the fami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concept of resilience based on the weaknesses as well as the strengths of the state of middle-age, and to deal with the family and social factors as well as individual ones.

Based on these necessitie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fluence of family stress and family resilience of those in middle age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The study included a sample of 298 people in their forties and fifties who live in or near Seoul. The methods of measurement used were based on articles by McCubbin(1982) and Kim An-Ja(2005) for family stress. Antonovsky & Sourani(1988), Olson and his colleagues(1985), Walsh(1998), and Kim Mi-Ok(2001) were referred to for family resilience. For the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 questionnaire was formed with reference to articles by D'Zurilla and Nezu(1990) and Park So-Ra(1998). A detailed analysis of references was carried out, using SPSS12.0 Windows program,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t-test, ANOVA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conclusion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trend of family stress,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the sampled people turned out to be higher than average.

Second, the study into family stress, family resilie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within various groups showed great differences according to certain factors including whether they had partners or not, family relations and family income, which lead to the importance of structural and relational elements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al elements.

Third, on the background factors and the influence of family stress and family resilience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the satisfaction r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ples, family income and role stability, open expression of emotion and mutual cooperations in problem solving influence 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s final factors, the most powerful factor was an open attitude in emotional expression. The next most powerful factors were mutual cooperation in problem solving, role stability, couple relations, and family income, in that order.

To summaries the result of this study, even if family stress exists above a certain degree, if the family functions healthily with a high degree of resilience, this stress can be overcome, and thus family resilience is seen to be a powerful influential factor i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re is a need for various consultational and educational programs to promote a proper social atmosphere, and at the same time there is also a need for a family based approach to social problem solving, which is not limited to individual ability. Furthermore, as the influential power of family resilience is evident as an important factor in this study, more research into the strong points of family relations will have to be conducted in the future.

<부록 - 1> 독립 변인들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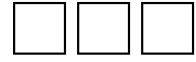
(N=298)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성별	1											
2 연령	-.078	1										
3 학력	-.174***	-.247***	1									
4 종교	.118*	.108	-.037	1								
5 배우자 유무	.079	-.063	-.078	-.056	1							
6 가족형태	-.041	-.108	.118*	-.073	.310***	1						
7 부부관계	-.186**	-.118*	.287***	-.044	-.363	-.085	1					
11 자녀관계	-.043	-.132*	.143*	.042	-.012	.060	.422***	1				
8 직업	-.202***	-.029	.125*	.030	.133*	.079	-.025	.021	1			
9 가계소득	-.185**	-.104	.353***	-.020	-.095	.090	.218***	.075	-.019	1		
10 생활수준	.109	-.006	-.168**	.052	.097	.001	-.156**	-.085	.011	-.375***	1	
12 가족관계 스트레스	-.052	.013	-.073	-.106	-.001	-.177**	-.120*	-.270***	.084	-.081	.227***	1
13 경제문제 스트레스	-.046	.005	-.063	-.066	.088	.023	-.104	-.103	.183**	-.101	.292***	.386***
14 직업 가족갈등 스트레스	-.057	.017	.037	.006	-.062	-.042	.289***	.295***	-.052	.034	-.074	-.141**
15 대인관계 스트레스	-.042	.122	-.180**	-.080	.141*	-.051	-.215**	-.257***	.076	-.176**	.154*	.388***
16 건강상실 스트레스	.013	.116	-.112	.041	.007	-.151*	-.154*	-.258***	.019	.017	-.012	.281***
17 가족통제감	.019	-.123*	.184**	.074	-.097	.080	.388***	.405***	-.054	.193**	-.101	-.355***
18 가족강점	-.048	-.020	.065	.045	-.065	.034	.359***	.373***	-.063	.061	-.111	-.267***
19 역할안정성	-.111	.003	.100	.056	-.156**	.035	.032***	.263***	-.096	.086	-.113	-.345***
20 가족응집력	.061	-.072	.019	-.012	.001	.072	.181*	.223***	-.008	.046	.005	-.117*
21 가족자원	.046	-.020	.141*	.063	-.095	.057	.239***	.292***	-.048	.171**	-.216***	-.254***
22 의사소통 명확성	.001	-.095	.056	.022	-.056	.058	.142*	.142*	.010	.038	.042	-.036
23 개방적 감정표현	-.022	-.123*	.114*	.091	-.087	.038	.247***	.262***	-.068	.021	.005	-.214***
24 상호협력적문제해결	-.103	-.021	.083	-.018	-.062	.005	.199**	.175**	-.048	.035	.049	-.111

변 수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3 경제문제 스트레스	1											
14 직업 가족갈등 스트레스	-.112	1										
15 대인관계 스트레스	.315***	-.186**	1									
16 건강상실 스트레스	.285***	-.194**	.401***	1								
17 가족통제감	-.269***	.401***	-.374***	-.345***	1							
18 가족강점	-.217***	.354***	-.281***	-.281***	.429***	1						
19 역할안정성	-.236***	.370***	-.327***	-.249***	.357***	.414***	1					
20 가족응집력	-.005	.423***	-.056	-.036	.342***	.338***	.162**	1				
21 가족지원	-.293***	.375***	-.230**	-.137*	.402***	.337***	.397***	.317***	1			
22 의사소통 명확성	-.008	.343***	-.104	-.046	.359***	.330***	.115*	.378***	.236***	1		
23 개방적 감정표현	-.155**	.314***	-.289***	-.389***	.319***	.252***	.323***	.258***	.208***	.164**	1	
24 상호협력적문제해결	-.066	.367***	-.066	-.104	.386***	.362***	.334***	.340***	.312***	.355***	.275***	1

* $p < .05$ ** $p < .01$ *** $p < .001$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가족탄력성을 중심으로 40-50대의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설문에는 정답이나 좋고 나쁨,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귀하의 생각대로 진솔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따른 연구결과는 순수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3월

성신여자대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지도교수 김 태 현 / 연구자 박 지 현 (tsjina@naver.com)

■ 다음은 귀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적거나 V표 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세
3.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졸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없다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
5. 귀하는 결혼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기혼 ② 미혼 ③ 별거 ④ 이혼
⑤ 사별 ⑥ 재혼 ⑦ 독신 ⑧ 기타

■ 이제부터 나오는 질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 다음은 귀하의 **가족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1	자녀와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줄어서 걱정된다.	1	2	3	4	5
2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괴롭다.	1	2	3	4	5
3	가족 모두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여 안타깝다.	1	2	3	4	5
4	자녀의 미래와 교육에 대해 걱정된다.	1	2	3	4	5
5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많아 부담스럽다.	1	2	3	4	5
6	값아야 할 빚이 있어 걱정된다.	1	2	3	4	5
7	가족생활유지에 필요한 지출(의복, 교통비, 등)이 많아 부담스럽다.	1	2	3	4	5
8	소득이 적어서 가족생활을 운영하기 힘들다.	1	2	3	4	5
9	가사일, 직장일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부담스럽다.	1	2	3	4	5
10	부모님이나 친척들의 경조사(결혼, 회갑, 제사 등)가 많아 신경이 쓰인다.	1	2	3	4	5
11	주변사람들에게서 괜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 힘들었다.	1	2	3	4	5
12	가까웠던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져서 안타깝다.	1	2	3	4	5
13	위급할 때나 행사가 있을 때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다.	1	2	3	4	5
14	가족들이 다치거나 많이 아픈 적이 있어 힘들었다.	1	2	3	4	5
15	부모님이나 형제 중 사망한 사람이 있어 허탈하다.	1	2	3	4	5
16	(16-18번은 직장이 있는 경우만 답해주시오) 일하는 것에 비해 보수가 적어 불만이다.	1	2	3	4	5
17	직장에서 일이나 동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힘들다.	1	2	3	4	5
18	자녀들이 내가 직장에 나가는 것을 원치 않아 힘들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 다음은 가족통제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2	협동해서 하는 일은 항상 잘 되는 편이다.	1	2	3	4	5
3	집안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을 때 손님이 올 경우 함께 집안정리에 참여한다.	1	2	3	4	5
4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나와 자녀의 이익을 모두 생각하기 어렵다.	1	2	3	4	5
5	가족생활이 단조롭고 판에 박혀 있다.	1	2	3	4	5
6	이사 했을 때,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7	이웃의 어떤 일이 우리 가족을 괴롭히면, 우리는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1	2	3	4	5
8	지금까지 우리 가족은 매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	1	2	3	4	5
9	가족생활에서 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5
10	내가 지치고, 기운이 없고, 화가 났을 때 내 자녀는 내 감정을 잘 알아준다.	1	2	3	4	5
11	우리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분명하게 잘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12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 가족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느낀다.	1	2	3	4	5
13	가족 내에서 생기는 어려운 일을 도전해 볼만한 것으로 느낀다.	1	2	3	4	5
14	가족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늘 해결책을 찾는다.	1	2	3	4	5
15	금전문제를 계획하지 않는다.	1	2	3	4	5
16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의욕을 상실한다.	1	2	3	4	5
17	이웃이 우리 가족을 비난하는 경우 우리 가족은 그 비난으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	1	2	3	4	5
18	슬픈 일이 있을 때, 다른 식구에게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 다음은 **가족강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각자 자신들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5
2	우리는 많은 일들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3	진정으로 서로를 신뢰하며 비밀을 털어 놓을 수 있다.	1	2	3	4	5
4	우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경험한다.	1	2	3	4	5
5	서로에 대해 충실하다.	1	2	3	4	5
6	각자 하고 싶은 일을 성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7	서로에 대해 비판적이다.	1	2	3	4	5
8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비슷한 신념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1	2	3	4	5
9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일들을 잘 처리해낸다.	1	2	3	4	5
10	서로를 존중한다.	1	2	3	4	5
11	우리 가족 내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	1	2	3	4	5
12	우리 가족은 자랑스럽다.	1	2	3	4	5

■ 다음은 **역할안정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집에서 할 역할이 충분히 나뉘어져 있지 않다.	1	2	3	4	5
2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1	2	3	4	5
3	식구들이 개인적인 관심사를 알아볼 시간이 거의 없다.	1	2	3	4	5
4	어떤 일을 부탁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알려줘야 한다.	1	2	3	4	5
5	가족으로서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 다음은 **가족응집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서로에게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2	각자의 친구들을 인정해준다.	1	2	3	4	5
3	우리 가족끼리만 같이 지내려고 한다.	1	2	3	4	5
4	가족 외의 사람보다는 우리 식구에게 더 친근감을 느낀다.	1	2	3	4	5
5	함께 시간을 보내기 좋아한다.	1	2	3	4	5
6	서로 매우 친하게 지낸다.	1	2	3	4	5
7	함께 해야 할 행사(예: 제사, 생일)가 있으면 모두가 참석한다.	1	2	3	4	5
8	가족이 함께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	1	2	3	4	5
9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에 있어서 의논한다.	1	2	3	4	5
10	가족의 일체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1	2	3	4	5

■ 다음은 **가족자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을 세울 때 잘해내리라고 거의 확신한다.	1	2	3	4	5
2	문제에 직면하여 그 해결책의 장단점을 살핀다.	1	2	3	4	5
3	어떤 일이 발생해도 밝은 면을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4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5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1	2	3	4	5
6	서로를 완전히 이해한다.	1	2	3	4	5
7	일의 결정과 수행에 있어서 가족구성원들과 꼭 상의한다.	1	2	3	4	5
8	각자의 흥미와 능력을 개발하도록 서로 격려한다.	1	2	3	4	5
9	바깥일에 다들 열중해서 가족끼리 함께 지내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1	2	3	4	5
10	책임분담에 있어 공평하지 않다.	1	2	3	4	5
11	서로의 관심을 함께 나누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1	2	3	4	5
12	가끔씩 서로를 언짢게 하는 행동을 한다.	1	2	3	4	5
13	가족 내에 문제가 있을 때 가까운 친지들(친척, 친구, 이웃)과 의논한다.	1	2	3	4	5

14	친지들이 기꺼이 우리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 고마운 말이나 일을 해 준다.	1	2	3	4	5
15	모임(계모임, 동창)에 꼭 참석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6	교회나 성당, 절 등에 열심히 나가고 있다.	1	2	3	4	5
17	근로소득이나 지원금 외의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임대수익, 이자, 주식 등)	1	2	3	4	5
18	5년 전보다 지금이 재정적으로 더 낫다고 느낀다.	1	2	3	4	5
19	자녀와 자주 외식을 할 만한 여유가 있다.	1	2	3	4	5
20	예상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저축해 둔 돈이나 매각할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1	2	3	4	5

■ 다음은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가족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누군가가 기분이 나쁘면 왜 그런지를 안다.	1	2	3	4	5
2	빚대서 말하기 보다는 직접 솔직하게 얘기한다.	1	2	3	4	5
3	서로에게 솔직하다.	1	2	3	4	5
4	누가 해 놓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말한다.	1	2	3	4	5
5	서로에 대한 애정표현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1	2	3	4	5
6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식구들이 있다.	1	2	3	4	5
7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8	우리 가족은 서로 다정다감한 편은 아니다.	1	2	3	4	5
9	집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쓴 후에 그것이 잘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얘기하곤 한다.	1	2	3	4	5
10	감정문제가 생기면 거의 풀고 지나간다.	1	2	3	4	5
11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1	2	3	4	5

■ 다음은 귀하가 문제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이게 되는 반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제 상황을 직면했을 때 나는...	1	2	3	4	5
1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없을 때 나 자신이 바보 같거나 무능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문제를 걱정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3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는 다급해지고 두려워진다.	1	2	3	4	5
4	종종 해결책이 있을지 의심이 든다.	1	2	3	4	5

5	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1	2	3	4	5
6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음으로 시도한 노력이 실패했을 때 나는 매우 화가 나고 좌절하게 된다.	1	2	3	4	5
7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1	2	3	4	5
8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결하지 않고 가능한 미뤄둔다.	1	2	3	4	5
9	나는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10	나는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부딪힌다.	1	2	3	4	5
11	나는 흔히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	1	2	3	4	5
12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
13	나는 문제의 해결을 미루다가 결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14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그 문제를 피하느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1	2	3	4	5
15	나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다.	1	2	3	4	5
16	너무 당황스러워서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해진다.	1	2	3	4	5
17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싫다.	1	2	3	4	5
18	나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좋은 도전이나 기회가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1	2	3	4	5
19	나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진다.	1	2	3	4	5
20	문제해결에 한번 실패하게 되면, 포기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21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노력이 실패하게 되면, 용기를 잃고 우울해진다.	1	2	3	4	5

■ 다음은 귀하가 **문제상황을 해결할 때 보이게 되는 반응**에 대한 질문입니다.

번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나는...	1	2	3	4	5
1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대안들을 충분히 주의 깊게 평가하거나 비교해보지 않는다.	1	2	3	4	5
2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하고자 할 때, 그 방안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3	가능한 한 많은 대안들을 생각해보고, 그 중 몇몇 대안들을 결합시켜 보기도 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본다.	1	2	3	4	5
4	크고 복잡한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를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 보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5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본 후에 나는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해 보지 않는다.	1	2	3	4	5

6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기면 나는 상황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본다.	1	2	3	4	5
7	해결방안을 실행한 후 나는 그 결과들을 주의 깊게 평가해보지 않는다.	1	2	3	4	5
8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대로 행동한다.	1	2	3	4	5
9	나는 가능한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5
10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에 무엇이 잘 되었고 잘못 되었는지를 생각해 본다.	1	2	3	4	5
11	문제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할 때, 나는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가능한 한 많이 생각해 본다.	1	2	3	4	5
12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실제로 사용해 보기 전에,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습해 본다.	1	2	3	4	5
13	발생된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알아보려고 한다.	1	2	3	4	5
14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가 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본다.	1	2	3	4	5
15	문제 해결 전 명확하게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1	2	3	4	5
16	최선의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는 각 해결방안들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	1	2	3	4	5
17	문제해결방법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알아내어 다시 시도해 본다.	1	2	3	4	5
18	가능한 한 많은 대안들을 생각해본다.	1	2	3	4	5
19	최선의 대안을 결정할 때 각 대안들의 결과를 잘 생각해보고 서로 비교해 본다.	1	2	3	4	5
20	나의 문제 해결방안은 대개 성공적이다.	1	2	3	4	5
21	문제에 영향을 미쳤을 내 주변 상황들을 검토해 본다.	1	2	3	4	5
22	결정을 내릴 때, 각각의 해결방안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결정한다.	1	2	3	4	5
23	결정을 내릴 때,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는 편이다.	1	2	3	4	5
24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둔다.	1	2	3	4	5
25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6	문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구체적인 실재적인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7	내가 사용한 해결책으로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는다.	1	2	3	4	5
28	나는 의사결정을 너무 충동적으로 해버린다.	1	2	3	4	5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